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별책부록: 친구들 · 2009년 9월호

리아호나

의로운
여성의
영향력, 2쪽

선교사가 되는 방법, 26~35쪽

내 인생을 바꾼
연차 대회 말씀, 36쪽

텐트 속에서의 간증, 친4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교회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의 유덕한 생활은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충만한 복음의 살아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뒤숭숭하기도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여성의 영향력”, 2쪽 참조.



성인

제일회장단 메시지

2 의로운 여성의 영향력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방문 교육 메시지

25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특집기사

8 한 가족이 남긴 봉사의 유산 돈 엘 설
충실한 봉사, 파라과이의 한 가족을 5대까지 축복해 주다.

18 계시의 역사: 칠십인의 역할을 밝히다 얼 시 텅기 장로
칠십인 조직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분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알 수 있다.

36 네 가지 말씀, 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다
연차 대회가 어떻게 삶에 축복을 주었는지 네 명의 회원이
말씀을 전한다.

특집란

40 교리와 성약 메시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입니다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장로
교회 회원은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할 의무가 있다.

44 후기 성도의 소리
약혼자와 교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아버지를 기억함;
헝클러 회장님의 권고를 받아들임; 경고의 음성에 귀 기울임.

48 이번 호 활용하기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과 이번 호의 주제들

청소년

특집 기사

14 성전으로 간 에버딘의 십대들 폴 밴덴버그
스코틀랜드 에버딘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일년 내내 연례 성전
방문을 손꼽아 기다린다.

26 선교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설득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제시합니다.

28 누가 준비되었을까? 앨리슨 리 버튼
친구와 복음을 나누고자 했지만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다.

31 서로 닳아가는 친구
호세 마리아 마르케스 블랑코
복음에 따라 생활하면서 우리도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집란

13 짧은 메시지
물문경에서 예기치 못한 교훈을 얻다.

32 복음 고전: 침례가 먼저입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영원한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되지만 그 전에 침례가 먼저입니다.

35 포스터: 여러분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39 알고 있나요?

표지
앞: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사이먼 듀이.
뒤: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이 좋은 편, 엘스페스 영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39~42)

2009년 9월호, 제46권, 제9호
리아호나 04289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입니다.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록, 디 도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콘디
고문: 카스 케이 힐버그, 요시히코 기무찌, 폴 비 파이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인 편집인: 레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렌 포드 콘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데카르, 주디스 엠 팔러, 조슈아 제이 페커, 제드 이 패리스, 잔 핀보로우, 리처드 엠 홀나, 돈 엘 설, 제인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털
선인 비서: 로열 튜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앤 캠펬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이로우, 콜레트 네베커 오온, 허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킴 핀스타머, 캐슬린 허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버, 스킵 엠 무이, 지니 제이 넬슨

사진 인쇄: 제프 앨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관: 제 518호, 제46권, 제9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9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 동 환

편집인: 박 승 훈

지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g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g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5,000원,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 침팬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September 2009 Vol. 33 No. 9.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어린이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마음속에 있는 사랑 표현하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친4** 특집 기사
모닥불 이야기와 간증 브렛 넬슨
- 친10** 루시가 위로 받았어요 줄리앤 도날슨
- 친6** 특집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선지자의 영감
- 친8** 함께 나누는 시간: 선지자는 우리 가족이
강화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쉐릴 에스플린
- 친12** 심심풀이: 선교사의 약속
아리 반 데 그라프
- 친13**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선교 사업 준비
발 채드워 배글리
- 친14** 친구가 친구에게:
사람을 대하는 방법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
- 친16** 색칠하기



친구들 표지 삽화: 스캇 그리어



이번 호에 숨겨진 타갈로그어 정의만 반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의를 택하듯이 올바른 페이지를 선택해 보세요!



애독자 편지

영적인 보물

처음 교회 회원이 되었을 때에는 리아호나를 읽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저활동이 되었습니다. 교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부터 다시 리아호나를 구독했는데, 그제서야 이렇게 훌륭한 영적 보물을 여태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리아호나는 단지 교회 정보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리아호나를 통해 간증과 경험, 가르침, 이 시대를 위한 권고를 나눌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에 담긴 가르침은 일상 생활에서도 유용합니다.

클라우디아 수자 알렌카, 브라질

복돌아 주고 교훈을 주는 리아호나

저는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가 주는 리아호나를 읽으며 마음에 큰 힘을 얻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이 책은 정말 훌륭합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일반 회원들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키웠는지 이야기해 주는 경험담 기사들이 좋습니다. 삽화는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화사하면서도 풍부한 표현력이 돋보입니다. 잡지를 잘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아트리체 카레리 올리호, 독일

의견이나 제안 사항을 liahona@ldschurch.com에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정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의로운 여성의 영향력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경 전에는 자신이 지닌 영적 은사로 여러 사람과 세대에 축복을 베푼 여성들이 나옵니다. 모든 산 자의 어머니인 이브, 그리고 사라, 리브가, 라헬, 마르다, 엘리사벳, 구주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언제까지나 추앙 받고 기억될 것입니다. 경전에는 또한 예수님이 수가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나(요한복음 4장) 잠언 31장에 묘사된 이상적인 아내와 어머니, 구주의 옷자락을 만져 온전하게 된 신앙심 깊은 여인(마가복음 5:25~34)처럼,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범과 가르침으로 우리 삶을 축복한 여성들이 나옵니다.

이 지구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행복과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에서 여성은 분명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자매들인 할머니와 어머니, 고모와 이모, 숙모, 친구들이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헌신과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간증이 없다면 이 교회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¹ 잠언의 저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교회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교회의 여성들이 주님의 계획에 합당하고 올바른 것을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지키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

“우리는 교회 여성들에게 의를 위해 함께 일어설 것을 촉구합니다. 각자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과 반에서 의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의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²

큰 문도 작은 경첩에 고정돼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도 모범을 보인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장과 옷 매무새, 말씨, 기도, 간증, 일상 생활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이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면 그러한 모범을 소중히 간직할 청소년들도 성전에 즐겨 갈 것입니다. 성전 가먼트에 맞춰 의상을 선택한다면 아이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차리고 여러분에게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행복과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에서 여성은 분명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교회
자매님들
 의 삶을
 살펴보면 자적을 갖춘
 사람이라면 “모든
 재[가] 유익을 얻”도록
 영적인 은사와 약속,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범이 되는 신앙

저의 장모님이신 카르멘 레이크 자매님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모님은 정말로 선택된 여성이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여시고 비탄과 슬픔에서 자신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두 어린 딸을 둔 젊은 미망인이셨던 장모님은 낡은 전통이 남아 있던 세상에서 벗어나 위대한 영성의 세상으로 발을 디디셨습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지성과 영성의 힘을 아주 빨리 받아들이셨습니다. 선교사들이 몰몬경을 주고 표시된 구절을 읽으라고 권했을 때 몰몬경 전체를 며칠 만에 다 읽으셨습니다. 장모님은 동년배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믿을 만큼 순수한 분이셨습니다.

장모님은 1954년 11월 7일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받은 지 불과 몇 주 만에 침례를 준 선교사에게서 간증을 적어 달라는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장모님의 간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참된 개종의 영을 느끼게 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는 장모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간증 원본을 40년 이상 간직하다가 장모님께 돌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척 특별하면서도 사랑이 듬뿍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영으로 얻은 간증

장모님이 직접 쓰신 간증을 일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알게 되고 나서 몇 주 후에 쓰신 것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를 만나기 전에 장모님은 몰몬경이나 조셉 스미스, 몰몬들에 대해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1954년 당시 미대륙 이외 지역에서는 캐나다와 하와이를 제외하고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장모님이신 레이크 자매님의 자필 간증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진 현대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명확하고 순수한 문체로 기록된 몰몬경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몰몬경은 성경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두 번째 책입니다.

“우리는 각 개인을 살피시는 하나님, 곧 기도를 관장하시고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신에 대한 신앙으로 함께 계속됩니다.

“또한 전세가 존재하고 그곳에 우리가 있었다고 믿는 신앙, 지상 생활에서 이루어야 할 목적, 죽음 이후에 오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지며, 흥미로운 많은 일들을 알려 줍니다. 이 복음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펼쳐져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알려 줍니다.

“교회에서는 몸과 영을 가장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여 우리가 품은 소망과 목적을 실현하도록 지혜의 말씀이라는 계명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후에도 우리 몸을 그대로 다시 소유한다는 지식에 기초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신성한 의식을 행하고 가족을 영원히 함께 묶어 주는 성전 사업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시를 통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인 카르멘 레이크는 2000년도에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성 고유의 정체성

교회 자매님들의 삶을 살펴보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모든 재가 유익을 얻”(교리와 성약 46:9; 9~26절 참조)도록 영적인 은사와 약속,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회복된 복음의 교리를 통해 여성은 “여성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딸로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게”³됩니다. 상호부조회, 청년, 초등학교 조직에서 봉사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사랑을 보이고 봉사하면서 여성들은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굳게 세우[는 일에서]”(교리와 성약 6:6)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것입니다. 여성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봅니다. 전도하고, 복지와 인도주의 및 그 밖의 사업에서 봉사하며,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들을 가르칩니다. 이외에 기타 여러 방법으로 성도들의 현세적, 영적 복지에 이바지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는 특성이 강하고 재능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성은 인생의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실, 동시에 여러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후기 성도 여성들은 가사와 의로운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은 물론, 필요한 경우 밖에서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는 교회의 모든 여성들에게 아주 위대한 시기입니다.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생득권을 받았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던 여러분은 참으로 국가를 건설하는 분들입니다.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건실한 가정이 국가에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남성들 또한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복음 원리가 앞으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자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복음의 빛 줄기가 미래에 어떻게 각 나라를 비출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⁴

우리가 종종 미래 세대에 미칠 여성의 영향력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이 발휘하는

여 성들은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굳게 세우[는 일에서]”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덕한 생활은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충만한 복음의 살아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은 교회가 조직된 주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행복한 삶을 만들며, 오늘 마음속으로 만족을 느끼며, 오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미래, 즉 앞으로 올 세상에서 얻을 구원과 승영의 시간만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영원의 일부입니다.”⁵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

이러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면 아내, 어머니, 편모, 이혼 여성, 미망인, 독신 여성 등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책임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재된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 이상으로 하지는 마십시오. 성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성취하지 못했다고 죄책감을 느끼며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앙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가족의 삶에서 기적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덕한 생활은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충만한 복음의 살아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45:28 참조) 이 세상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뒤숭숭하기도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여러분은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교리와 성약 81:5)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축복과 도전 속에서 매일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생과 내세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선택된 여성들의 남편, 아버지, 아들, 형제, 친구로서 우리 신권 소유자들은 주님의 시각으로 여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하나님의 딸로서 그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 초기 시기에 주님께서 에머 스미스에게 남편인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은 가르침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앞에서 유덕한 길을 걸으[라] …… 너는 두려워 할 필요가 없나니 ……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 두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할지니라. …… 네 마음을 고양시키고 기뻐하[라]. ……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을 너는 받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25:2, 9, 10, 13, 15)

이 기사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주는 나의 음성입니다.”(16절)

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특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⁶

이 모든 진리에 대한 간증과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전합니다. 아멘.

주

1. 히버 제이 그랜트, *Gospel Standards*, 편집: 지 호머 더럼(194년), 151쪽.
2. 고든 비 헝클리, “Standing Strong and Immovable,” *Worldwide Leadership Training Meeting* 2004년 1월10일, 20쪽.
3. “Women, Roles of: Historical and Sociological Development,” 편집자: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Encyclopedia of Mormonism*, 전5권(199년), 4:1574.
4.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찬송가, 167장 참조.
5. 데이비드 오 맥케이, *Pathways to Happiness* 편집: 르웰린 알 맥케이(195년), 291~29쪽.
6. *History of the Church*, 4:605.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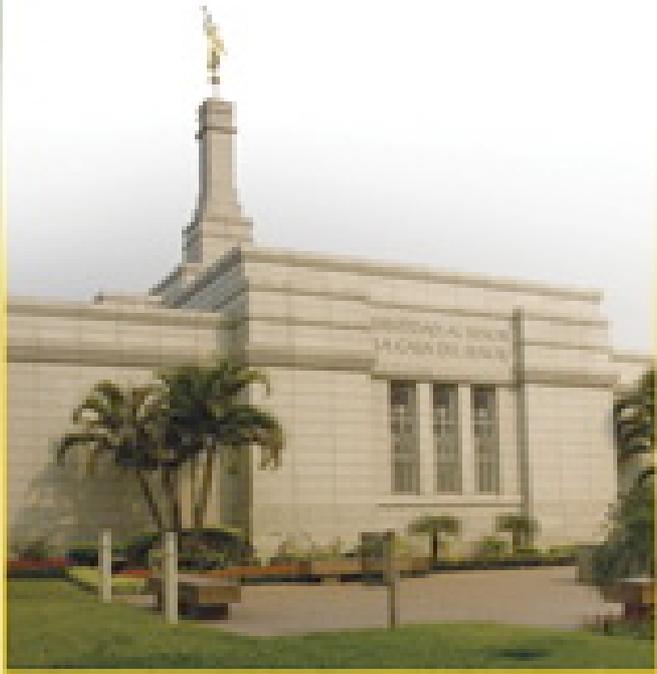
기 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눈다. 다음에 제시된 몇 가지 예를 따를 수 있다.

1. “모범이 되는 신앙” 편에서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장모님인 카르멘 레이크 자매에 대해 말했던 내용을 읽는다. 그리고 나서 레이크 자매의 간증을 읽고, 그녀가 열거한 복음 원리를 토론한다. 가족들에게 그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친 의로운 여성들의 모범을 이야기해 달라고 권유하면서 마친다.

2. “여성 고유의 정체성” 편을 참고하여 의로운 여성의 특징에 대해 토론한다. 기사에 나와 있는 예를 활용하여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의로운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살펴본다. 기사의 마지막 편을 읽고 마친다.

한 가족이



한 파라과이 여성은 새로 찾은 신앙에 확고했고, 그 굳건함으로 복음 안에서 봉사하는 전통이 5대까지 이어졌다.

돈 엘 설
교회 잡지부

산 체스 부부(남편: 델리오 코스메 산체스, 아내: 울로지아 디아스 데 산체스, 역자 주: 파라과이에서는 결혼 시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름.)의 자녀들은 지부 초등학교 회장으로 봉사한 어머니에 대한 다음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초등학교 모임이 주중 오후에 열리던 시절, 울로지아는 이웃 어린이로 구성된 “작은 무리”를 모아 오곤 했다. 울로지아의 딸 중 한 명은 매주 교회로 향하던 마나먼 그 길을 기억한다. 회원이건 아니건 상관 없었다. 아이들이 그곳에 가고 싶어하고 부모가 허락하면 울로지아는 모두 데리고 갔다. 울로지아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랐다. 산체스 부부의 자녀들은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셨던 아버지에 대해 다음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일요일 아침에 집회소에 제일 먼저 도착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리되었는지 확인한 후, 가장 나중에 나가는 사람이었다. 파라과이 지방부가 우루과이-파라과이 선교부 소속이던 그 시절, 파라과이 지방부 회장이 되고 나서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교회에서 헌신했다.

산체스 부부의 자녀들은 이제 중년이 되었고, 그중에는 손자

손녀가 있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부모님에게는 교회 모임에 빠져도 될 만한 합당한 핑계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기억한다. 산체스 가족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회소까지 먼 길을 걸어 다녔다. 지부에 회원이 몇 명 안 되던 초기 시절에 이 가족은 공과를 가르치고 음악을 지휘하며, 교회 건물을 청소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에 교회는 파라과이에서 엄청나게 성장했다. 지금 파라과이에는 10개 스테이크와 11개 지방부가 있으며 회원 수는 약 6만 6천 명에 이른다. 또한 두 개의 선교부가 있다. 파라과이에는 미국 이외 지역에는 네 개 밖에 없는 비하이브 클로딩(Beehive Clothing) 공장 중 하나가 있어 성전 의복과 가먼트가 이곳에서 생산된다.

이 나라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집회소는 모든 이들의 애정이 깃든 유서 깊은 장소이다. 그곳은 ‘모로나이 예배당’이라고 불렸는데 예전에 그곳에 있었던 와드의 이름을 따랐다. 현재는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다. 파라과이 아순시온 성전은 “라 만자나 모로나”, 대략 번역하자면 파라과이의 성전 광장의 중심부가 되었다.

파라과이 회원들은 발전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축복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된 회원들은 이 나라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필요했던 희생을 잊지 않고 있다.

유산을 마련함

울로지아 디아스 데 산체스는 1960년 10월에 침례를 받았다. 한 지역 교구의 목사는 울로지아에게 교회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설득하느라 애썼지만 울로지아의 간증은 아주 확고했고, 결코 설득 당하지 않았다.

그 다음 달에 울로지아의 어머니인 카스토리나와 울로지아의 딸인 리두비나가 침례를 받았다. 다른 딸 리나도 침례를 받고

남긴 봉사자의 유산

산체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잔치를 열었다.
반대 쪽: 파라과이 아순시온
성전



싫어했지만 리나의 남편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

울로지아의 남편인 텔리오는 1961년에 교회에 들어왔다. 기술자였던 텔리오는 동료에게 이제 일요일에는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텔리오는 동료는 선뜻 이를 받아들였는데 텔리오가 성실했고 사업이 발전하는 데 공을 세웠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텔리오와 울로지아,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모범에 내재된 무한한 힘을 볼 수 있다.

리나는 “부모님의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리나는 처음에는 침례 받을 수 없었지만 비회원으로 할 수 있는 한 충실하게 봉사했다. 울로지아와 자녀들이 모범을 보여주면서 리나의 남편도 더 이상 교회를 반대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1986년에 리나는 기쁜 마음으로 침례의 물가에 들어서게 되었다.

리나와 자매지간인 리두비나는 부모님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끊임없이 참여했다고 회상한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울로지아가 여전히 살고 있는 집은 1970년대 한때 잠시 동안 일요일 집회소로 사용된 적이 있다. 현재 교회에는 텔리오와 울로지아의 후손 60여 명을 포함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부가 보인 모범 덕분에 교회에 가입한 사람들 20여 명이 있다. 리두비나는 부모님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훗날 부끄럽게 느낄 만한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텔리오와 울로지아는 친절하기로 유명했다. 리두비나는 가족이 식사를 할 때 아버지가 근처에 사는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누구 누구가 지금 먹을 음식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하곤 했다고 기억한다. 식사 전에 아버지는 가족 중 한 명을 시켜 그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게 하곤 했다.

리나와 그녀의 가족은 수년 동안 부모님 옆집에 살았다. 리나의 아들인 엔리케 오헤다는 할아버지인 텔리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교리와 성약 121편 [41~4절]에 나오는 성품을 보여 주시며 신권 소유자로서 모범이 되셨어요.” 엔리케는 할머니 울로지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할머니는 신앙과 간증에 용감했던 담대한

여성이셨어요.”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엔리케 할머니 집에 와서 머물렀던 적이 있고(이때 텔리오와 울로지아가 관대하게 도움을 주었다.) 그 집을 떠날 때 그들은 텔리오와 울로지아가 보인 모범 덕분에 교회 회원이 되었다.

성인이 되어 자기 가정을 꾸린 텔리오와 울로지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범을 따른다. 많은 교회 부름에서 봉사했으며 리두비나는 선교 사업을 했고, 고향 파라과이로 돌아가기 전에 우루과이에서 여러 해 동안 교회 일을 했다. 텔리오와 울로지아의 아들 실비오가 교회에 들어오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역시 부모님이 보여준 봉사의 귀감을 따랐다. 실비오는 그 후 아르헨티나에 지부를 설립하는 일을 도왔다.

성장하는 세대

엔리케는 할아버지 텔리오가 침례 받던 해에 태어났다. 엔리케는 자라면서 옆집에 살던 할아버지와 이모들과 자주 시간을 보냈다. 모두들 교회 일에 열심이였다. (그는 리두비나 이모를 둘째 엄마라고 부른다.) 어렸을 때 엔리케의 부모님은 회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엔리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모두 교회에서 자랐습니다.”라고 말한다.

아버지 비센트는 교회와 연관되기 싫어서 교회에 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조차 싫어했다고 한다. 물론경을 건네 주는 아이들에게 그 책을 다시 던지기도 했다. 엔리케는 “결국 아버지를 바꾼 것은 자녀들의 모범이었어요.”라고 말한다. 엔리케가 받은 축복사의 축복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의 모범으로 교회에 가입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었다. 엔리케와 가족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

1986년, 엔리케의 남동생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아버지의 반대가 많이 누그러졌고,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 리나가 침례 받는 데 동의했다. 가능한 한 빠짐없이 교회에 참석하고 봉사를 해온 지 25년 만에 리나는 회원이 되었다. 그러나 남편이 그 길을 따르기에는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비센트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교회 회원인 채로 몇 년이 더 지났다. 2002년 어느 일요일 아침, 비센트는 일어나서 정장을 하고 교회에 가서

복음을 배울 준비를 했다. 오래지 않아 비센트는 침례를 받았고, 2003년에는 성전에서 아내 리나와 인봉되었다.

이제 엔리케 세대는 교회에서 성장하고 부모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녀들을 두게 되었다. 울로지와 텔리오의 후손은 지금까지 자녀가 6명, 손자 손녀가 18명(이중 네 명이 선교사로 봉사했음), 증손자 증손녀가 23명에 이른다. 이 증손자 증손녀들은 가정에서 배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모든 일을 선택한다.

엔리케의 딸 아드리아나(19세)는 늘 유혹이 있지만 자신과 형제 자매들, 사촌들은 그런 상황에서 “간증을 기초로 선택”한다고 말한다. 18세인 여동생 비비안은 친구나 주변 사람이 담배나 술, 혹은 다른 이들이 하는 여러 행동을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은 왜 하지 않는지 궁금하게 여기면 우리의 표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선교 사업의 기회가 생긴다고 덧붙인다.

윌리엄 다 실바(19세)도 울로지의 증손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리나의 딸인 메르세데스 오헤다 데 다 실바의 아들이다. 어머니처럼 윌리엄도 여덟 살에 침례를 받고 교회에서 성장했다. 윌리엄의 누나와 형은 선교사로 봉사했다. 윌리엄은 지금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서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가정에서 받은 가르침 때문에 윌리엄과 형제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적인 사촌들은 다른 많은 친구들과 달리 훨씬 튼튼한 영적 기초 위에서 생활한다. “재미있게도 친구들이나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굉장히 신뢰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친구 부모님들은 종종 ‘윌리엄이나 아드리아나, 비비안 같은 애들이 참석하는 행사라면 너희들도 가도 돼. 그 아이들이 가는 데라면 나쁜 일을 하는 곳이 아닐테니까.’라고



말한다며 윌리엄은 설명한다.

표준을 지킴

아드리아나가 입는 긴 치마 중 하나는 원래 옆 트임이 길게 있었는데 형질을 대서 꿰매 고친 것이다. 어머니 리디아(엔리케의 아내)와 숙모 메르세데스는 파라과이 여성들이 옷 가게에서 정숙한 옷을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산체스의 후손들은 다른 사람들도 종종 해야만 하는 작업을 한다. 즉, 옷을 고쳐 입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어 입는다. 메르세데스의 어머니이자 리디아의 시어머니인 리나는 이 가족의 재봉사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젊은 여성들이 바느질 기술을 배운다.

메르세데스 데 다 실바는 이웃에서 몇 안 되는 후기 성도 중 한 사람으로 자랐다. 실바는 그런 생활이 특별히 힘들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제 친구들은 전부 제가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 믿음을 존중해 주었죠.”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파라과이에서 한동안 운영되던 후기 성도 학교에 다녔던 것도 행운이었다. “제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단계는 제가 그

울로지아 디아스 데 산체스(중앙는 1960년에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인도했다. 딸 리두비나(왼쪽)와 리나는 부모님의 모범을 보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 배웠으며, 이들도 이 봉사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했다.



올로지아 디아스 데 산체스의 세 증손자 증손녀가 가정의 밤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에두아르도, 아드리아나, 비비안 오헤다. 이들은 올로지아의 손자 엔리케와 아내 리디아의 자녀들이다.

나이였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 현 사회의 표준은 훨씬 더 개방적이다. 메르세데스는 자신과 남편 에르네스토 다 실바가 가정에서 높은 표준을 유지해 왔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다 자란 자녀들에게까지 귀가 시간을 정해 놓은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자녀들과 복음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가정의 밤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죠.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에르네스토 다 실바 회장은 올해 4월에 지역 칠십인에서 해임되었고, 현재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선교사로 봉사한 다 실바의 아들 크리스티안과 딸 카렌은 집으로 편지를 써서 부모님이 가르쳐 준 높은 표준과 큰 모범에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카렌 다 실바는 2008년에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선교부에서 귀환했다. 카렌은 이렇게 설명한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부모님과 부모님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며 사셨어요.” 카렌이 집에서 배운 것들은 선교 사업 동안 순종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해 가르칠 때 도움이 되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 선교부에서 귀환한 크리스티안은 부모님이 보여 준 모범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누나와 똑같은 말을 했다. “복음에 대한 제 간증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가르침을 제 삶에 적용하면서 자라난 거예요.”

크리스티안의 간증은 엘마가 설명한 그대로 생겨났다. 마음에 씨앗을 심을 공간을 만들었고, 부모님이 진리를 가르쳤으며, 그 씨앗의 열매가 좋다는 것을 부모님의 삶에서 목격했다. (엘마서 32:27~43 참조) “저는 계속해서 이 나무, 곧 제 간증을 신앙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증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계속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메르세데스 데 다 실바는 어린 시절에 복음 생활이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보면서 ‘나도 어른이 되면, 똑같이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형제인 엔리케는 복음에 따라 생활하면 자녀를 신앙 안에서 키우는 몇 가지 열쇠를 얻는다고 말한다.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으로 가르치며, 복음이 인생을 사는 방법임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 열쇠들입니다.”

복음을 통해 그의 자녀들은 물론 파라과이의 후기 성도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다른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영적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삶은 길, 곧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엔리케는 말한다. 그 목적은 영원하다. 충실하고 순종적인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들은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압니다

피터 아모아-오헤나과

어린 시절부터 교회 회원들이 물몬경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마다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압니다.”라는 말을 매번 반복되는 상투적인 말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 선교 사업을 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말 뒤에 숨겨 있던 진리를 배웠다.

어느 날 밤, 동반자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어두운 비포장 도로 위를 자전거로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는 비 때문에 엉망이었다. 빗물과 도로 상태 때문에 동반자는 무언가에 부딪쳐 자전거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가지고 있는 거라곤 옷과 경전 가방뿐이었는데 모두 젖고 흠투성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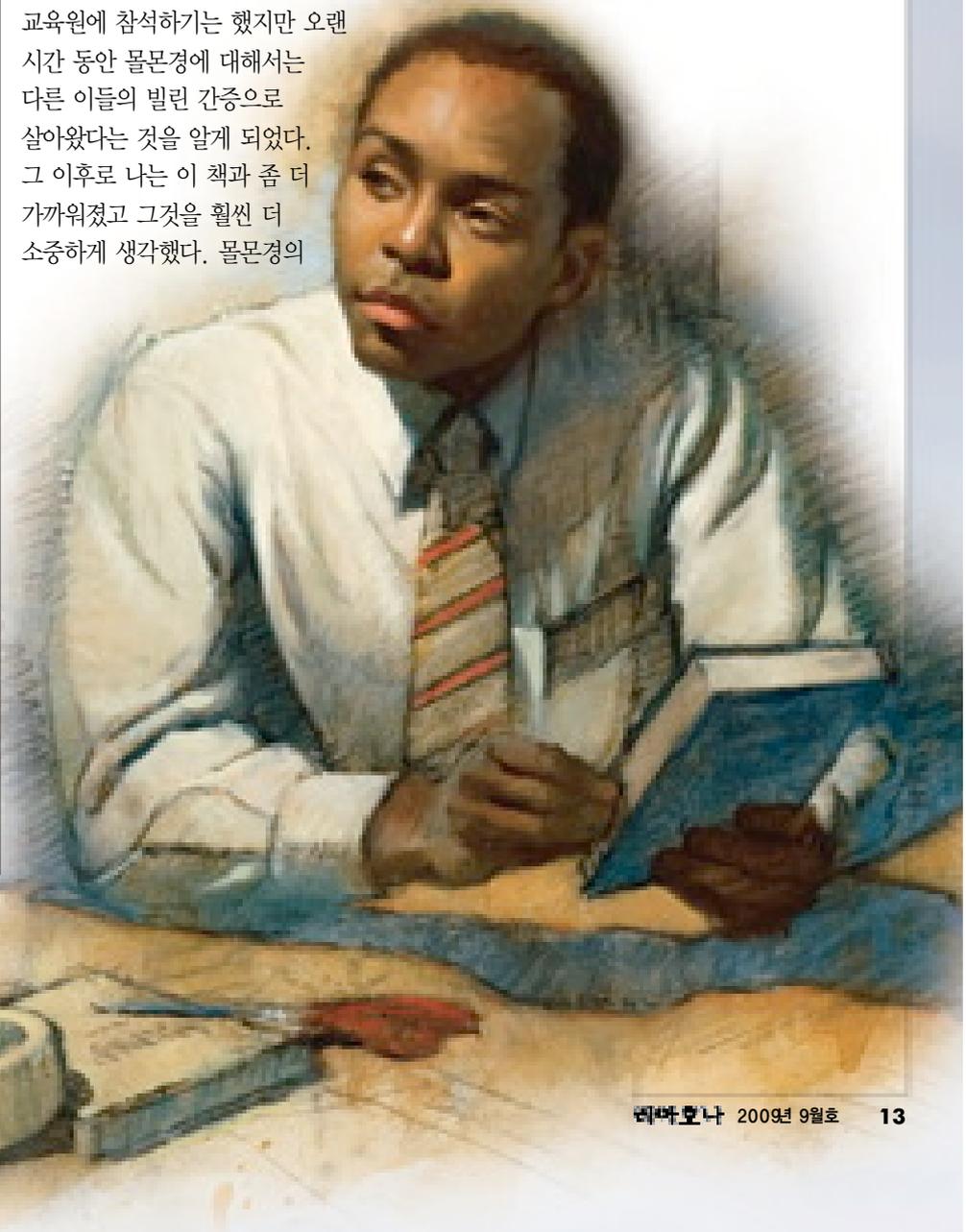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그 사고로 엉망이 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씻어 말렸다. 하지만 동반자 가방에 있었던, 그 날 전도하고 남은 물몬경 두 권은 말리지 않았다. 숙소에 물몬경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 사고가 나고 몇 달 후였다. 나는 닳아빠진 찬송가 표지를 어떻게 고칠지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다 책장에 방치해 둔 얼룩진 물몬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 표지가 찬송가를 고치는 데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막상 잘라내려고 하니 양심이 찔렸다. ‘이 책은 네가 전파하는 책이잖아. 이런 식으로 다루면 되겠니? 구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는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표지를 잘라 내는 대신에 비눗물로 닦아내고 말린 다음 조심스럽게 책장에 도로 넣어 두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물몬경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의 빌린 간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이 책과 좀 더 가까워졌고 그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물몬경의

신성함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할 때에야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물몬경을 읽고, 숙고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서 그 책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성전으로 간 애버딘의 십대들

스코틀랜드 애버딘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일 년에 한 번씩 성전을 방문한다. 이 경험으로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다.

폴 밴덴버그
교회 잡지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브리지 오브 돈 워드의 베다니 길무어(17세)는 말한다. “성전에서 한 주를 보내다 보면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간증이 강해지죠. 그래서 해마다 다시 가고 싶어져요. 성전 여행을 통해 배운 것들은 평생 제 마음 속에 남게 되는데, 제 삶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죠.”

스코틀랜드 애버딘 스테이크 회장인 크리스토퍼 패인 회장이 말했던 그대로다. 스테이크 청소년들에게 영국 프레스턴 성전을 매년 방문하는 일에 대해 물어보면 이러한 대답이 나올 거라고 말해 주었다. 과장이 아니었다.

해마다 여름이 돌아오면 애버딘 스테이크의 60~70여 명의 청남 청년이 성인 지도자들, 스테이크 청년 독신 성인들과 함께 영국 프레스턴을 향해 여섯 시간 반 동안 차로 달린다. 그들은 성전에서 6일을 보낸다. 매일 아침 침례와 확인 의식을 받고, 오후에는 활동과 봉사 활동으로 바쁘게 지낸다. 저녁에는 모여서 노년의 모임을 열고 경전을 공부한다. 마지막 날에는 간증 모임을 하는데, 대개 네 시간 정도 진행된다. 그러나 이 옛새 간의 일정이 그 해의 나머지 359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례 성전 방문에 관해 토론하기 위해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청소년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 최선을 다할 때 일상 생활이 더욱더 질서가 잡히는 것을 느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 십대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들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일 년 내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지냄

청소년들의 생활에 성전이 가져온 변화는 한 순간에 그치지 않는다. 애버딘 와드의 멜라니 뷰스(17세)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전을 떠나는 그날, 이미 다음 여행을 준비하게 되죠. 일년 내내 합당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다시 성전에 올 수 있도록 합당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멜라니는 스테이크 청소년 지도자들이 성전 준비를 위한 여덟 단계와 이에 포함된 포스터를 보여주며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표로 그 발표 내용을 사용했어요. 그 표에는 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이 몇 개 있었죠. 예를 들면, 영적 경험에 대한 일지를 따로 쓰는 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엘진 지부의 나단 커밍(18세)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성전에 참석할 준비를 하면서 함께 선교 사업을 준비합니다.” 합당한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에 집중하기 때문에 매일 기도와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고 한다. “지난 번에 성전 여행을 하기 전까지 더 많이 기도했어요. 저는



이따금씩 자신감이 없고 수줍음을 타서 곤란을 겪곤 하죠. 그래서 이번 성전 여행을 준비하며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자신감을 얻으려고 기도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나단은 이 경험들이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애버딘 와드의 마이리 패인(15세)은 성전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지난 수년 동안 자기에게는 얼마나 뜻 깊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성전에 갈 준비를 하면서 여럿이 함께 금식을 했죠.” 이제는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한다. “올해 이 여행에서 많은 것을 얻고 간증이 더 커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금식했어요.” 또한 경전, 특히 물문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생긴 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경전을 더욱 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하죠. 특히 침례에 관한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연구하고 이해하려 열심히 노력합니다.”

베다니 길무어는 이렇게 요약한다. “성전 여행에서 배운 것을



매일 떠올리게 되죠. 집으로 돌아오면 다음 여행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새겨 보고 성전에서 얻은 그 느낌들을 다음 여행까지 일년 내내 간직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궁리하게 되죠.”

가장 드높은 빛

“성전 여행이야말로 한 해 중 가장 멋진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고대하죠.” 브리지 오브 돈 와드의 호프 프레이저(18세)가 말한다. 그러나 가장 드높은 빛은 바로 성전 여행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에게서 발한다. 올해 성전 방문 중에서 호프의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월계만 특별 모임이었다. “정말 훌륭한 모임이었어요. 원래 데이트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서로에게

전하고 싶었던, 고맙다는 말만 하다가 끝나버렸죠.” 이 경험은 월계만 고문들에게도 애정 어린 추억이 되었다.

엘진 지부의 제임스 보우커트(18세)는 성전 봉사 중 최고의 순간으로 자신의 조상을 위해 침례 받았던 일을 꼽았다. 성전 여행을 하기 전에 한동안 제임스는 침례를 받게 될 조상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녔다. “이름을

영국 프레스턴 성전에서 보낸 날들은 가슴 벅차고 보람 찬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대리 침례를 받고, 봉사 활동과 노변의 모임으로 바쁜 일정을 보낸다. 축구 같이 재미 있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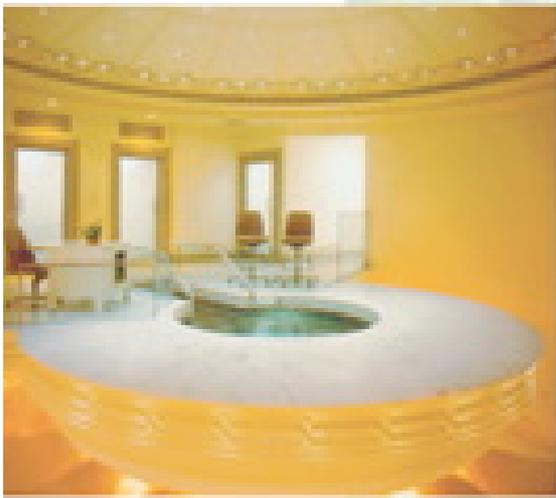


불러보면서 그분들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정말 제 일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족들 이름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휘장 저편에 있는 분들과 더욱 강한 연대감을 느꼈어요.”

마일리 패인은 성전 안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청소하고 잡초를 뽑는 봉사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한다. “저는 성전 대지에서 봉사했던 일이 아주 좋았어요. 주님의 집을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일이 뭔가 특별하게 느껴졌죠.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는 쇼핑을 가지 않고 친구와 시간을 보냈던 게 가장 좋았어요.”라고 멜라니 뷰스가 말한다. “친구들과 성전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 더 잘 알게 되고 세상적이지 않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아주 재미있었죠. 간증을 키우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일이 가장 좋았어요.”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언급한 최고의 순간은 간증 모임이었다. 부칸 와드의 재닌 갈(19세)은 이렇게 말한다. “간증 모임은 길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10분 정도 밖에 안 지난 것 같았죠.” 그녀는 이렇게 덧붙인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이 확고해지고 서로 가까워졌어요. 그게 참 좋았죠. 적은 숫자가 모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하죠. 성전에서 서로를 잘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단합과 지지

비록 아주 작은 후기 성도 청소년 그룹이지만 애버딘 스테이크의 청남 청녀는 강하다. 애버딘 와드의 사이몬 로버슨(18세)은 한 해 동안 “우리는 모두 흠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성전에 있을 때 한 가족처럼 느끼게 되죠. 성전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같이 행복하고, 끊임없이 영을 느끼게 됩니다. 성전에서 아주 큰 평화를 느끼게 되죠. 복음대로 살겠다는 결심뿐 아니라 더 훌륭하게 생활하겠다는 결심을 확고하게 다지게 됩니다. 항상 그 느낌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재닌 같은 이렇게 설명한다. “저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 청녀가 4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죠. 활동이나 세미나리를 하러 만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영적으로 늘 강하게 지낸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성전 가는 것이 정말 즐거워요.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친구들은 제게 힘이 되고 저도 친구들에게 힘이 되거든요.”

침례와 확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며 흰 옷을 입고 함께 앉아 있을 때나, 성전 침탑에 있는 모로나이 천사상 아래서 함께 경전을 읽을 때나, 또는 성전 마당에서 함께 잡초를 뽑을 때 청소년들은 힘을 합쳐 일한다. 애버딘 와드의 페이지 패인(13세)은 청소년들끼리 친해지다 못해 온 몸이 흠뻑 젖어 버렸던 활동을 기억한다. “우리는 잡초를 뽑고 있었어요. 어떤 식물 주변에 잡초가 자라고 있었죠. 잡초를 모두 없애야 했는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비가 마구 쏟아졌고 우리 모두 흠투성이가 되었죠. 경사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미끄러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성전 직원분들은 우리가 계속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브리지 오브 돈 와드의 에단 프레이저(18세)는 복음 안에서 굳건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그의 일상 생활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덧붙인다. “교회에 훌륭한 친구들이 있어서 좋아요. 제가 시련을 겪을 때에도 힘이 되는 누군가가 곁에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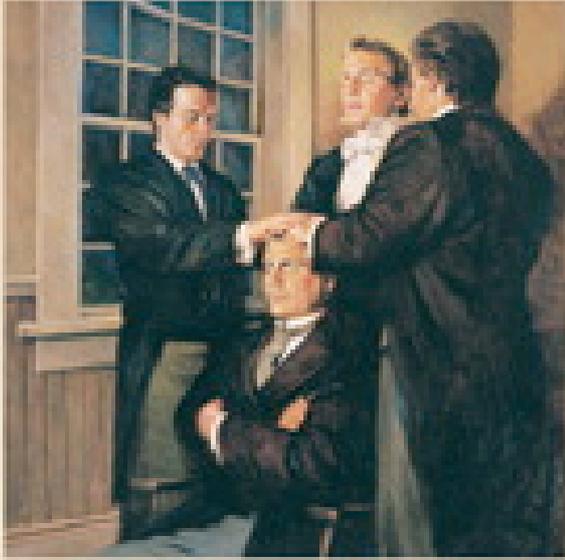
차이

패인 회장은 무엇이 애버딘 스테이크 청소년들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설명한다. 청소년들은 교회에 가고 활동에 참여하며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패인 회장이 전에 있었던 다른 스테이크에서도 청소년들이 했던 일이다.

패인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애버딘 스테이크로 이사 와서 첫 번째 성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것은 일년 내내 계획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여행이 청소년들의 삶에 영을 유지시켜 준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일년 내내 성전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성전 여행에 갈거니?’ 라고 물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감으로써, 거룩한 장소에 서게 됨으로써 그들은 변화됩니다. 그날 그 순간에 만이 아니며, 그 시간 그 주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변화됩니다.” ■





계시의 역사:



엘 시 텅기 장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

칠십인의 역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칠십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분의 뜻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 35년 2월 8일, 조셉 스미스는 브리검 영과 조셉 영에게 자신이 보았던 시현에 따라 십이사도와 칠십인을 조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 참조)

그런 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적당한 거리 내의 지부에 거주하시는 형제님들은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릴 연차 대회에 모이셔야 합니다. 저는 그날 그곳에서 외국을 향해 복음의 문을 열 특별한 증인 열두 사람을 임명할 것입니다.’ (브리검 형제를 바라보며) ‘형제님은 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 그런 후 조셉 스미스는 조셉 영 장로를 바라보며 매우 진지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조셉의 마음속에서는 시현이 계속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조셉 형제님, 주님께서서는 형제님을 칠십인 정원회의 회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영 형제들은 이 신권 직분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의 말씀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¹

맨 위, 왼쪽부터: 십이사도 정원회 초기 회원들 및 초기 칠십인들이 1835년 2월 성임됨. 30번째 칠십인 정원회 회장 일곱 명과 서기, 1890년경. 88번째 칠십인 정원회 회원들과 그 가족들, 1897년 3월.

그 다음 주 토요일인 2월 14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임명을 받아 성임되었으며, 그로부터 2주 후에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들이 임명을 받고 성임되었습니다.

칠십인의 역사에서 제가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 경륜의 시대에 칠십인이 처음으로 부름을 받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칠십인이라는 직분은 경전에 교리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2) 칠십인이 하는 역할은 십이사도가 받은 사명과 불가분의 관계로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살펴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어쩌면 더욱 더 중요한 세 번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말씀에



칠십인의 역할을 밝히다

칠십인 역사

- 1835년 2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칠십인 직분을 제정했음을 발표하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를 조직.
- 1835년 3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칠십인 부름과 역할에 관한 지시를 받음. (교리와 성약 107편 참조)
- 1836년 1월:** 칠십인 회장단이 커틀랜드 성전에서 기름 부음과 축복을 받음. 같은 달에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도 커틀랜드 성전에서 기름 부음과 축복을 받음.
- 1836년 2월:** 조셉 스미스가 일부 지도자들을 만나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들을 선정.
- 1837년 4월:** 칠십인 회장단 재조직.
- 184년 1월:** 칠십인의 의무가 명시됨(교리와 성약 124:138~139 참조.)
- 1844년 12월:** 나무에서 칠십인 건물이 헌납됨.
- 1846년:** 성도들이 나무를 떠날 무렵에 칠십인 정원회가 약 30개로 증가.
- 1883년 4월:**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이 발전해 나아감에 따라 필요한 뜻을 “때때로” 알려 주시겠다고 제일회장단에 말씀하심.
- 1899년:** 칠십인들이 교회 학교의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
- 1904년:** 칠십인 정원회 수가 146개로 증가.

말씀을 더하여 계시하시며, 이 후기의 칠십인이 선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교회와 개인이 계시를 받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1. 경전에 교리적 기반을 둔 칠십인의 직분

칠십인이 처음으로 언급된 경전은 구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명”(출애굽기 24:1)에게 지시를 주신 기록에 칠십인이 처음 등장합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혼자 짐을 짊어지지 말고 칠십인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 칠십 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민수기 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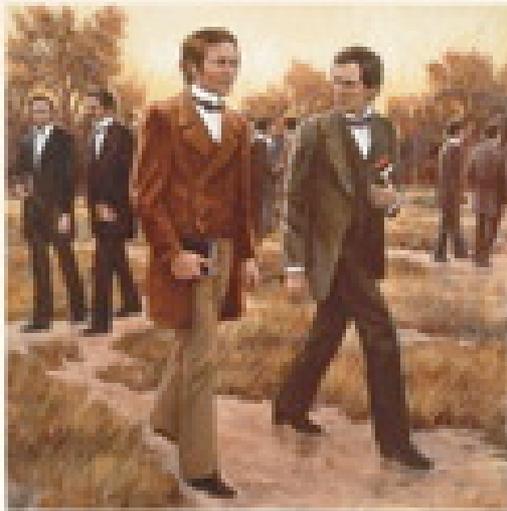
칠십인에게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주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임한 “영”을 칠십인에게도 주셨습니다.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민수기 11:25)

신약 시대에 세워진 교회에도 칠십인 직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칠십인을 부르시고(누가복음 10장 참조) 십이사도에게 주신 것과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참조) 구주께서는 칠십인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누가복음 10:16; 또한 1~15절 참조)
 칠십인이 주님께 드린 보고를 살펴보면 칠십인이 어떤 권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누가복음 10:17)

2. 십이사도의 사명과 연관된 칠십인의 역할

십이사도와 관련하여 칠십인이
 수행하는 역할은 구주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더 분명해집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십이사도만으로는 모든
 회원을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 과부들이 일상적인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칠십인이
 부름을 받고 교회 성장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처했습니다. 칠십인들이
 일부 책임을 맡게 되자 십이사도는
 그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십이사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사도행전 6:3~4)

이러한 절차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으며,
 십이사도 직분과 연관된 칠십인 직분은 현대에 받은 계시에서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 “칠십인도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인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서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나니”(교리와 성약
 107:25)
- “칠십인은 십이사도 곧 순회 고등평의회에의 지시 아래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여야 하나니”(교리와 성약 107:34)
- 십이사도는 “도움이 필요할 때 복음을 전파하며 베풀기
 위한 여러 부름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 대신에
 칠십인을 [불러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07:38)
- 칠십인은 “순회 장로들을 위하여 제정되나니, 순회 고등

평의원 곧 나의 사도들이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도록
 그들을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24:139)

저는 지금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 형제님들 한 분 한 분이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를 돕는 임무를 커다란 특권으로
 여긴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칠십인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제일회장단은 세 명으로,
 십이사도 정원회는 열두 명으로 각각
 구성되지만 칠십인의 지위와 정원은
 유연성 있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3. 주님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뜻을 밝히심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을 때
 칠십인을 포함한 초기 성도들은 여러
 곳에 마련된 정착지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칠십인은 약 30개 정원회로

조직되었습니다. 서로 거리가 멀어서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들과
 지도자들은 본래 자신이 속한 정원회에서 모이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리하여 1883년에 제일회장단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칠십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하는지 고안하고, 이를
 기록했습니다.

1883년 4월 14일, 주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며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적은 것은 나의 뜻이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도다. 그리고 더 나아가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한 나의 교회와 신권의 관리 및 조직, 그리고
 나의 업적의 성취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시간에 걸쳐 내가 정한 수단을 통해
 때때로 나의 교회의 완성과 장래의 성장, 나의 왕국의 적응과
 나아감, 그리고 시온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밝혀
 주리라.”²

칠십인과 관련된 역사를 연구하면 이 말씀대로 “때때로”

1936년 3월: 각 스테이크에 칠십인 제일 평의회가 관리하는 스테이크 선교부 조직.

1953년: 각 스테이크에 칠십인 정위원회 또는 조직 편성.

196년 6월: 칠십인 제일 평의회 회원 네 명이 대제사로 성임됨. 칠십인 제일 평의회 회원들이 스테이크 회장단을 조직하고 재편성할 권한을 받음.

1964년 1월: 칠십인 제일 평의회 회원들이 인봉 권능을 받음.

1967년: 69명의 형제들이 십이사도 정위원회의 지역 대표 (regional representatives of the Twelve)로 부름 받음.

1974년 3월: 제일회장단이 칠십인 제일 평의회 승인을 받은 스테이크 회장들에게 칠십인을 성임할 권능을 부여.

1974년 10월: 칠십인 조직이 중단되고 각 스테이크는 정위원회를 운영할 권한을 받음.

1975년: 십이사도 정위원회 보조들이 북미 이외 지역에서 총관리 역원 지역 관리자로 임명됨.

1975년 10월: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가 총관리 역원 정위원회로 재구성.

1976년 4월: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 회장 직분에 대해 번갈아 가며 그 직을 맡게 될 것을 제일회장단이 승인.

1976년 10월: 십이사도 보조들과 칠십인 제일 평의회 회원들이 해임된 뒤,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로 부름 받음.

1976년 10월: 스테이크 칠십인을 성임할 때 더 이상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1978년 9월: 몇몇 총관리 역원이 명예 지위를 받음.

1980년 2월: 교회 본부 부서의 집행 책임자로 봉사하던 칠십인들이 칠십인 회장단으로 부름 받음.

1984년 4월: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의 새로운 회원 여섯 명이 3년에서 5년 동안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으로써 총관리 역원의 임기에 새로운 전례가 수립됨.

1984년 7월: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 회원들이 십이사도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을 관리하도록 지역 회장단으로 부름 받음.

1986년 10월: 스테이크 내의 칠십인 정위원회 중단.

계시를 받아 왔던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를 통해 칠십인이라는 부름과 의무, 책임이 경전에 나오는 교리적 기반에 따라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위원회의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칠십인 조직에서 전개된 일들은 “그 자체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이며 계시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³

말씀에 말씀을 더하는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 칠십인의 역사에서 있었던 중요한 과정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십인 조직 편성. 1835년 2월, 선지자 조셉은 이 경륜의 시대에 봉사할 첫 칠십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1834년에 성도들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조직되어 오하이오 주에서 미주리 주로 행군했던 시온 진영의 일원이었습니다.

칠십인으로 봉사했던 비 에이치 로버츠(1842~1933) 장로님은 칠십인으로서 봉사하는 일이 다음과 같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에서 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희생하거나 자신의 삶을 바쳐서라도 그러한 희생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⁴

나부에서 이룩한 성장. 성도들이 나부에 머무는 동안 “칠십인의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 1845년 1월 1일에는 정위원회가 열네 개 있었습니다.” 일 년 후에 칠십인 정위원회는 30개가 되었습니다.⁵

유타 주에서의 분산. 유타 주에 도착한 후에 칠십인들이 분산되자 1883년에 제일회장단은 새로운 제안을 마련하였고, 칠십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위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님께서서는 제일회장단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으며, 때때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알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야흐로 계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스테인크와 선교부 내의 칠십인 정원회. 1953년 4월, 정원회가 약 500개에 이르렀을 무렵, 정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일부 칠십인들을 우려한 제일회장단은 칠십인들이 36명 이상 있는 스테이크와 선교부 내에서는 일곱 명의 회장이 감리하는 칠십인 정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⁶

칠십인이 36명 미만인 스테이크와 선교부에는 칠십인 정원회 대신, 한 명의 회장과 두 명의 보좌가 감리하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런 후 조직과 정원회 사이를 구별할 때 혼동되지 않도록 정원회와 조직은 번호에 따라 순서대로 조직되었습니다. 1974년에 칠십인 조직은 중단되었고, 각 스테이크에 정원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스테이크 정원회의 회장단들은 스테이크 선교부 회장단으로 봉사했습니다.⁷

그에 앞서 1936년 3월부터 교회는 각 스테이크에 선교부를 세워 선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스테이크 선교부는 스테이크 회장을 통해 일하는 칠십인 제일 평의회가 관리했습니다.⁸

칠십인 제일 정원회 재설립. 1975년 10월 연차 대회에서는 계속되는 계시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님이 칠십인 제일 평의회를 재편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평의회는 총관리 직원 70명과 일곱 명의 회장으로 구성됩니다.⁹ 그로부터 일 년 후인 197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는 칠십인



칠십인 제일 평의회란 무엇인가?

선 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5년 2월 28일에 칠십인 제일 평의회를 조직하면서 칠십인 제일 평의회를 조직했다. 제일 평의회는 제일 정원회 회장 일곱 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평의회는 1976년까지 어떤 형태로든 유지되었고, 그해에 평의회 회원(앞: 에스 딜웬스 영 장로, 에이 테오도르 터틀 장로, 폴 에이치 던 장로; 뒤: 하트맨 렉터 2세 장로, 로렌 시 던 장로, 렉스 디 피네가 장로, 진 알 쿡 장로)들은 총관리 직원으로 재구성된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았다.

제일 평의회가 맡은 역할과 의무는 세월이 흐르고 계시가 더해지면서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책임은 다른 칠십인을 감리하고 칠십인이 맡은 현재 일을 관리하는 것이다.

제일 정원회가 칠십인 제일 평의회와 십이사도 보조가 추가되어 확장되었습니다. 제일 정원회의 모든 회원은 칠십인 직분에 더하여 대제사 직분에도 성임되었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조치와 더불어 계시를 통해 규정된 교회를 관리하는 세 개의 정원회, 즉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제일 정원회는 주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각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왕국을 직접 통치하시려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현재 해야 하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점점 이 사업이 확장되고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¹⁰

스테인크 정원회 중단. 1986년 10월 4일, 모든 칠십인 스테이크 정원회는 중단되었으며, 스테이크에서 칠십인으로 봉사했던 형제들은 장로 정원회의 일원이 되거나 대제사 직분에 성임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칠십인은 교회의 총관리 직분의 직분이 되었습니다.¹¹

제이 정원회 설립. 1989년 4월 1일, 칠십인 제이 정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¹² 이렇게 하여 칠십인으로 구성된 두 정원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제일 평의회에 속한 총관리 직원은 70세에 명예 총관리

직원이 되며, 제이 평의회에 속한 총관리 직원은 5년 임기로 봉사합니다.

지역 직원 부름. 1995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역 대표는 모두 그해 8월 부로 해임되었습니다.

1989년 4월: 칠십인 제이 정원회 조직. 이 정원회 회원의 임기는 5년.
1991년 11월: 제일 정원회 회원들이 70세까지 봉사하고, 제이 정원회 회원들은 5년 후 해임되는 정책 수립.
1993년 4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지역 대표의 해임 및 지역 관리 역원의 부름을 발표. 이 조치는 1993년 8월에 실시.
1997년 4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구성된 칠십인 제삼, 제사, 제오 정원회 조직.
1997년 6월: 지역 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이 스테이크 및 선교부 회장들로 구성된 회원 선교사 협의 평의회를 감리하기 시작.
2000년 5월 및 2002년 9월: 회원 선교사 협의 평의회가 대부분의 교회 프로그램과 여러 스테이크의 관심사를 포함하도록 확장됨.
2004년 4월: 칠십인 제오 정원회가 분할되어 칠십인 제육 정원회 조직.
2004년 8월: 십이사도의 지시에 따라 칠십인 회장단이 모든 교회 지역을 책임지기 시작. 칠십인 회장단 회원들은 본부 주요 부서에서 더 이상 집행 책임자로 봉사하지 않음. 일곱 명의 회장들은 북미에 있는 11개 지역을 모두 관리하도록 임명됨.
2005년 4월: 칠십인 제사 정원회에서 칠십인 제칠 정원회 조직. 제삼 정원회가 분할되어 제팔 정원회 조직.
2008년 6월: 제일회장단이 지역 회장단의 책임 증가 발표.

그리고 지역 역원 직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역 대표는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를 훈련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된 교회 부름이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지역 역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대제사로서 과거나 현재의 경험 있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불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현 직업에 그대로 종사하고 자택에 거주하며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계속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봉사 기간은 융통성이 발휘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략 육 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역 회장단과 밀접하게 연결될 것입니다.”¹³

지역 칠십인의 부름. 2년 후인 1997년 4월, 힝클리 회장님은 지역 역원들이 칠십인으로 성임되어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현재는 지역 칠십인)으로 불릴 것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칠십인의 숫자와 책임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칠십인으로서 그들은 계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¹⁴

힝클리 회장님은 이 형제들이 정원회로 조직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칠십인 제삼 정원회, 제사 정원회, 제오 정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지역 칠십인들은 회원 선교사 협의 평의회(선교부 회장 및 선교부 내의 모든 스테이크 회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감리했습니다. 이후 이 모임은 협의 평의회로 변경되어 불렸으며, 안전도 대부분의 교회 프로그램과 여러 스테이크의 관심사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칠십인 회장단 임무 확장. 2004년 4월, 칠십인 회장단의 회원들은 본부 주요 부서의 집행 책임자



칠십인 제일 및 제이 정원회, 2006년.

임무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대신 다른 칠십인들이 그 직책에 임명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인 2004년 8월, 칠십인 회장단은 북미에 있는 열한 개 교회 지역을 모두 관리하고 십이사도를 도와 전세계 모든 지역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십인 회장단은 매주 화요일에 모든 십이사도와 함께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십이사도는 칠십인 회장단 조직을 회장단으로서 신뢰하며 이에 따라 칠십인 회장단은 “다른 칠십인을 택하고 그들을 감리”하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107:95)

현재의 칠십인

칠십인의 조직과 의무에 대한 계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제일회장단은 최근 세계 곳곳의 교회 지역을 통합했으며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칠십인들에게 관리 책임을 더 많이 맡겼습니다.¹⁵

조셉 스미스가 처음으로 칠십인을 성임했을 때만 해도 이 직분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 있는 여덟 개 정원회에 315명의 칠십인이 봉사하게 될지 알 수 있었을까요? 조셉 스미스는 전혀 알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제 간증입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셨으며, 조셉은 경전 속 교리와 “칠십인의 제도를 보여 주는 시현”(교리와 성약 107:9)에 기초하여 후기의 토대를 세웠을 뿐입니다.

칠십인의 역사가 펼쳐지는 처음부터, 그리고 칠십인 직분이

경전에 따라 계속 발전하는 모든 단계에 주님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이렇게 전개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패커 회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이 역사는 “계시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칠십인에 대한 뜻을 밝히셨으며, 저는 그분께서 칠십인과 그분의 교회에 속한 회원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 계속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주

1. 조셉 영, “History of the Organization of the Seventies”(187년), 1~2쪽, 교회사에서 인용, 2:181, 주석.
2. James R. Clark 편,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전6권(1965~197년), 2:354.
3. 보이드 케이 패커, “The Seventy Is an Especial Witness of Jesus Christ”(198년 9월 29일에 전한 말씀), 10쪽.
4. 비 에이치 로버츠, *The Seventy's Course in Theology, First Year*(190년), 6쪽.
5. 비 에이치 로버츠, *The Seventy's Course in Theology*, 8~9쪽.
6. Conference Report, 1953년 4월, 51쪽 참조.
7. 1974년 10월 11일 제일회장단 서한 참조.
8. “A New Plan for Missionary Work in the Stakes of Zion”, *Improvement Era*, 1936년 5월호, 273쪽 참조.
9. 스펜서 더블류 김볼, “The Time to Labor Is Now”, *Ensign*, 1975년 11월호, 4쪽 참조.
10. 스펜서 더블류 김볼, “The Reconstitution of the First Quorum of the Seventy”, *Ensign* 1976년 11월호, 9쪽.
11. 에즈라 래프트 벤슨, “Godly Characteristics of the Master”, *Ensign*, 1986년 11월호, 48쪽 참조.
12. 토마스 에스 몬슨, “The Sustaining of Church Officers”, *Ensign* 1986년 5월호, 17쪽 참조.
13. 고든 비 헝클리, “이 사업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업입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51쪽.
14. 고든 비 헝클리, “May We Be Faithful and True”, *Ensign*, 1997년 5월호, 6쪽.
15. 2008년 6월 19일 제일회장단 서한 참조.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성구와 인용문,
또는 다른 원리를
가르친다. 교리에 대해

간증을 전한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조셉 비 워스킨 (1917~2008)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충실한 교회 회원은
참나무처럼 복음의 기본 원리라는 비옥한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그러한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초는 단단해야 합니다. 깊이 뿌리 내려
유혹과 거짓 교리, 역경, 적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거나 절멸되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강하게 되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따르듯이 영적인
영양분을 취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하고, 매일 경전을 읽고,
개인 또는 가족 기도를 드리며,
정기적으로 성전 사업을 행하면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영적인 힘은
건전지와 같습니다. 힘을 충전해야 하며,
자주 재충전해야 합니다.” (“Deep Roots”,
Ensign 1994년 11월호, 75쪽)

바바라 톰슨,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

제2보좌: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 있고 강인한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힘과 신앙과
담대함으로 진리를 선언하는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의로움으로 본이 되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열망하는”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행한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뻐합시다”, 바바라 톰슨,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 제2보좌,
리아호나 및 *Ensign* 2008년 11월호,
116쪽)

니파이후서 31:12: “나를 따르며, 너희가
본 바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라.”

복음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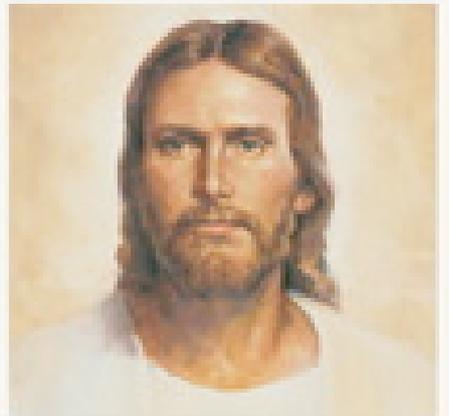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제일회장단

제2보좌: “올바르게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실천한다면 더욱 더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분께서 살아 계시며 이 복음이 참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지상에서 겪는
개인적인 일뿐 아니라 집단으로 겪는 모든
어려운 문제에 그분이 해답을 알려
주신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우리를 들어올려 주는 힘”,
리아호나 및 *Ensign* 2005년 1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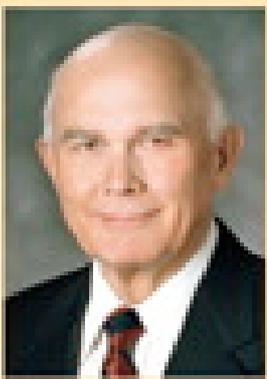
100~10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행복의 계획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면 지상은
화평과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풍요로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Answers to Life’s Questions”,
Ensign 1995년 5월호, 23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도록
복음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면 영이 늘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계명에 순종하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이유는 시련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으로 가르침”, *리아호나*, 2003년
9월호, 10, 15쪽; *Ensign* 2003년
9월호, 20, 24~25쪽) ■



선교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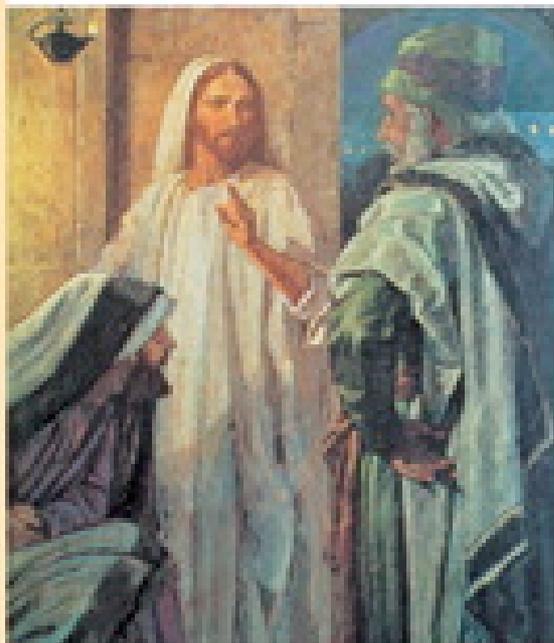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선교 사업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께서
정하신 조건을 충족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선교 사업의 교리적 기반은 구주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왕국]”는 해의 왕국을 뜻합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또는 교회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설득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을 선하게, 선한



사람을 더욱 선하게 만들어 주는 많은 성직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존중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의 도움 없이도 별의 영광이 아닌 달의 영광에 갈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그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합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께서 정하신 조건을 충족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낮은 왕국에 제한되지 않고 해의 영광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침례를 베풀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침례와 확인을 주기 위해 선교 사업을 합니다. 선교 사업은 바로 이 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리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특별한 것은 많은 지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침례의 필요성은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가 학술적인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회복된 복음은 교리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주께서 정하신 조건에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침례가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즉 물속에 잠기는 행위를 영원한 복음 의식으로 변형시키는 권세가 이 교회 신권 소유자들에게 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베풀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침례가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누가 준비되었을까?

엘리슨 리 버튼

고등학교를 다니던 마지막 해 동안 나는 영의 인도에 따라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기도할 때 사실 한 친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애슐리(가명)라는 그 친구는 교회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고, 후기 성도 청소년들과 같은 표준을 이미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애슐리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했다.

당시 나는 월계반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감독단과 함께하는 청소년 위원회 모임에서 감독님에게 상호 향상 모임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자고 제안하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 와드 청소년들이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활동에 회원이 아닌 친구들을 초대해야 한다고 느꼈던 것이다. 감독님은 장로님들과 함께 열심히 그 활동을 준비하셨고, 나는 이것이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했다. 이제 애슐리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복음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애슐리가 분명 질의응답 활동에 와서 영을 느끼고, 선교사 토론을 받고 싶다고 말하며, 한 달쯤 후에 침례를 받아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애슐리를 그 활동에 어떻게 초대할지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계획과 복음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도록 주님의 손 안에 든 도구가 되게 해

나는 내 친구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이런 느낌을 받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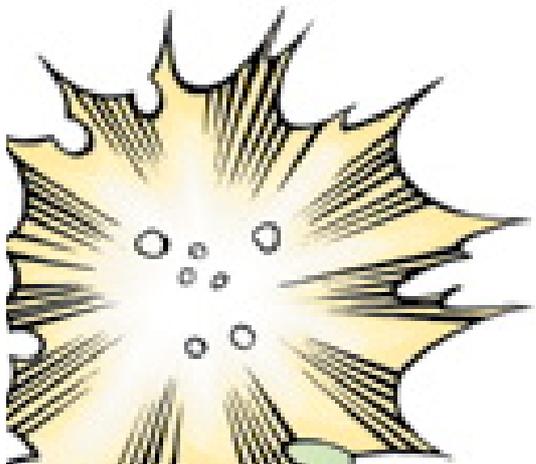
달라고 기도했다. 학교에서 애슐리를 활동에 초대했고, 애슐리는 참석해도 괜찮은지 부모님께 여쭙 보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애슐리가 내게 전화를 했다. 애슐리는 부모님이 확실히 허락하셨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후기 성도 룸메이트 두 명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으며 아버지는 그들의 생활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했다. 내가 생각했던 유일한 장애물은 애슐리가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것을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기뻐다.

다가오는 선교 사업 활동에 대해 계속 기도하는 동안 내가 정말 주님의 손 안에 든 도구이며, 그분께서는 내가 감독단과 함께한 청소년 위원회 모임에서 받은 느낌에 따라 행동한 것에 대해 기뻐하신다고 느꼈다. 나는 그날 활동을 무척 기다렸다. 애슐리와 나는 수년간 친구로 지내 왔다. 나는 친구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또한 친구가 개종하도록 도울 수 있어서 기뻐다.

활동이 있던 날 아침, 애슐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생각이 바뀌었고 활동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이에 나는 매우 놀랐고 혼란스러웠다. 나는 애슐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왔고 애슐리가 준비되었다고 확신했다. 그 때문에 그렇게 선교사 역할에 온 정성을 다했던 것이다. 순간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활동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내 친구





애슐리가 틀림없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애슐리였다.

애슐리가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언했었기 때문이다.

방에 앉아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 자신에 대해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다. 애슐리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면 선교사 질의응답 활동이 영의 속삭임이었다는 믿음도 잘못된 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불신과 분노, 자기 연민, 실망과 같은 청소년기 특유의 감정에 휩싸인 나는 활동에 가지 않기로 했다.

몇 주 뒤, 학교 도서관에서 만난 브라이언이 자신의 침례식에 오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브라이언과 나는 그해 같은 수업을 하나도 듣지 않아서 얼굴을 마주 보거나 함께 이야기한 지 꽤 오래된 사이였다. 지난 해에 우리는 역사 수업 시간에 서로 옆 자리에 앉았고 과제도 함께 준비했다. 선생님께서 정해 주셨던 과제 주제는 “조셉 스미스와 몰몬들”이었다. 함께 그 주제에 대해 조사하는 동안 브라이언이 꽤 흥미를 보였던 것이 기억났다. 그러나 브라이언은 “너네 엄마가 몇 번째 부인이라고 했지?” “이번 주말에 재미있는 파티가 있는데, 아 참, 너 몰몬이지. 너랑 가면 재미 없겠다.”라고 하면서 농담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브라이언이 침례식에 초대했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해 또 농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 브라이언은 우리처럼 “구속하는 표준”이 있는 교회에 들어올 만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브라이언이 지난 몇 주 간 자신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 회오리 바람을 몰아쳤는지 이야기했고, 나는 깜짝 놀랐다. 브라이언은 같은 반에 있는 친구와 우리 워드 회원이 질의응답 활동에 한 아이를 초대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말했다. 초대받은 아이가 거절했을 때 브라이언은 자신이 대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활동에 참석한 후에 브라이언은 곧바로 선교사 토론을 듣기 시작했다. 브라이언은 몰몬경을 읽고 기도한 끝에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브라이언은 정말 침례를 받을 것이며, 원한다면 나도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셉 스미스와 몰몬을 처음 알려 준 사람은 바로 나였다고 말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나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깨달았다. 그분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도록 그분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찾기 위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다. 나는 선교사들을 만나도록 브라이언을 초대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 내가 보기에 브라이언은 애슐리와 달리 준비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겸허해지는 그 순간, 영이 주는 모든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애슐리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계속 기도했지만, 애슐리에게 복음을 나누려 했던 노력에 대해 뜻밖의 결과를 얻게 되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느낌에는 항상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꼭 알거나 추측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확신과 굳은 결의로 그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내가 맡은 책임인 것이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기보다 선교 사업을 할 기회를 위해 기도하고, 느낌에 따라 행동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도구로서 좀 더 온전하게 봉사하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

친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면서 우리도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로 닮아가는 친구

호세 마리아 마르케스 블랑코

나는 형이 모범을 보여 반 친구 몇 명을 변화시킨 일에 늘 감탄했다. 형의 친구들은 형과 우정을 나누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형의 모범을 보면서 나는 “친구를 선택할 때 주의하라. 네 친구를 닮아갈 것이다.”라는 말이 “친구를 선택할 때 주의하라. 친구들은 너를 닮아가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줄곧 같은 친구들하고만 어울렸다. 그러나 어느 해 새로운 학생이 한 명 전학 왔는데, 그 아이는 나와는 달리 인기가 많았다. 그런데도 여하튼 나는 그 아이와 친구가 되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더 친해져서 단짝이 되었다.

나는 학교가 끝나면 습관처럼 곧바로 세미나리에 갔다. 그 모습을 본 그 친구는 어느 날 매일 어디에 가느냐고 물었다. 이번 기회에 교회에 대해 모조리 다 말해 줘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친구의 표정을 본 순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강요하는 듯한 대화를 거기에서 멈추었다.

몇 달 후, 장로님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나는 친구 몇 명과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내 단짝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장로님들에게 교회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그 친구는 장로님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더니 내가 생활하는 방식 중 일부가 자신이나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했다. 그 친구는 교회와 상호 향상 모임, 그리고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교회에 다니는 내 친구들이 모두 나와 같이 동일한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침례식에서 감독님은 그 친구에게 간증을 부탁했다. 그 아이는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과는 달랐던 한 친구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다른 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다른 이들이 우리와 같진 않건 같지 않건 말이다. 우리처럼 주님의 참된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절대 미리 알 수 없다. ■



침례가 먼저입니다



침례만 받는다면 축복을 받아 영원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데이비드 비 헤이트(1906~2004)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28년간 봉사했다. 헤이트 장로는 197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며 다른 사람들도 “영원한 가족”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누라고 격려했다.

가정의 밤 교재에 나오는 첫 공과는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주제가 “영원한 가족”인데, 탁자 위에 결혼 증서, 성전 추천서, 성전 사진, 침례 증서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 두라고 합니다. ……

교회 회원들은 탁자 위에 올려 놓은 이

물건들이 모두 성전 결혼 및 “영원한 가족”이 되는 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물건 중 한 가지, 즉 침례 증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부부는 침례 증서를 소유하고,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교회 회원으로 생활하며, 해의 왕국의 결혼에 대한 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침례만 받는다면 축복을 받아 영원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임 선교사들은 세계 전역에서 사람의 영혼을 침례의 물로 인도하는 일에 점점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열심히 협조한다면 그 성공은 배가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대부분 친구나 이웃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을 꺼리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선교 사업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지인이나 이웃과 우정 증진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귀환하는 선교부 회장들에게 “어떻게 하면 회장님의 선교부에서 더 많은 개종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면 항상 같은 답변이 돌아옵니다. “회원들이 친구와 이웃에게 선교사를 만나도록 준비시킨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잊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은 것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어 증언하게 하며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였노니, 경고를 받은 각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경고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핑계가 있을 수 없나니”(교리와 성약 88:81~82)

선교사들은 복음을 질서 있고 영감 받은 방식으로 가르쳐서, 바라건대 침례로 이어지도록 훈련 받습니다. 선교사는 매 시간을 생산적으로 귀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1,000 가정을 접촉하면 약 한 명에게 침례를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지만 바로 그 선교사들이 1,000명을 회원 가정에서 가르치면 그 중 600명에게 침례를 주게 됩니다. 회원들이 신념을 갖고 참여하면 개종자 수가 60에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짧은 주님의 종들이 여러분의 와드와 지부에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더욱 잘 훈련 받고 준비되어 더욱 숭고한 소망과 포부를 품고 나아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가족은 이웃과 복음을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보이면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

제 친구가 비행기 안에서 한 여성에게 말을 건넌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몇몇 조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앤더슨에 사는 친척을 만나러 갔다 온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왜 오래 전에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제 친구는 여행객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왜 오래 전에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 여성은 “네, 궁금하네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전에서 조상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정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부인은 구주께서 십자가 형을 받으신 후, 그 시신이 무덤에 누여 있던 삼 일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어디에 계셨나요?”

친구는 이어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시대에 순종하지 않았던 영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세상의 구주께서 굳이 삼 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전파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네요.”라고 그 여성은 말했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부활과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고린도전서 15:29)

“부인께서는 부인의 결혼식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부인의 결혼 서약은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실 때 만료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여

러분이
 외치는
 경고의
 음성은 그들의 귀에 가
 닿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노력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이 침례의 물에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지난 달 초에 세상을 떠났지만, 영원히 제 아내입니다. 지상에서 하는 결혼이 하늘에서도 구속력이 있게 하는 신권 권세로 저희 결혼이 집행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원히 서로에게 속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도 영원히 우리에게 속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에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인이 복음에 대해 배우고 부인의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조상에게 영원히 인봉되어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이 있는 지 얼마 안 되어 친구는 이 여성과 그 가족에게 자기 명함과 함께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님이 쓰신 책 기이한 업적을 한 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이름은 그녀가 살고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도시에서 봉사하는 전임 자매 선교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여성을 처음 만난 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분은 무척 친절했습니다. 우리를 만났을 때 그분의 눈은 빛을 발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신사분이 내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리라는 간증과 확신을 그분의 마음에 전해 큰 결실로 돌아올 씨앗을 심었던 거죠. 선교사로서 우리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가족”의 필수 요건인 침례 증서, 성전 추천서, 결혼 증서를 기억하십니까? 우선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은 침례 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만 함이니 ……”

“그리고 너희 손으로 내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여 많은 자에게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리니, 이는 그들로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함이며 …… 내 아버지의 왕국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8:42, 44)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우정 증진할 가족을 찾고, 목표와 실행 날짜를 정하며, 적합한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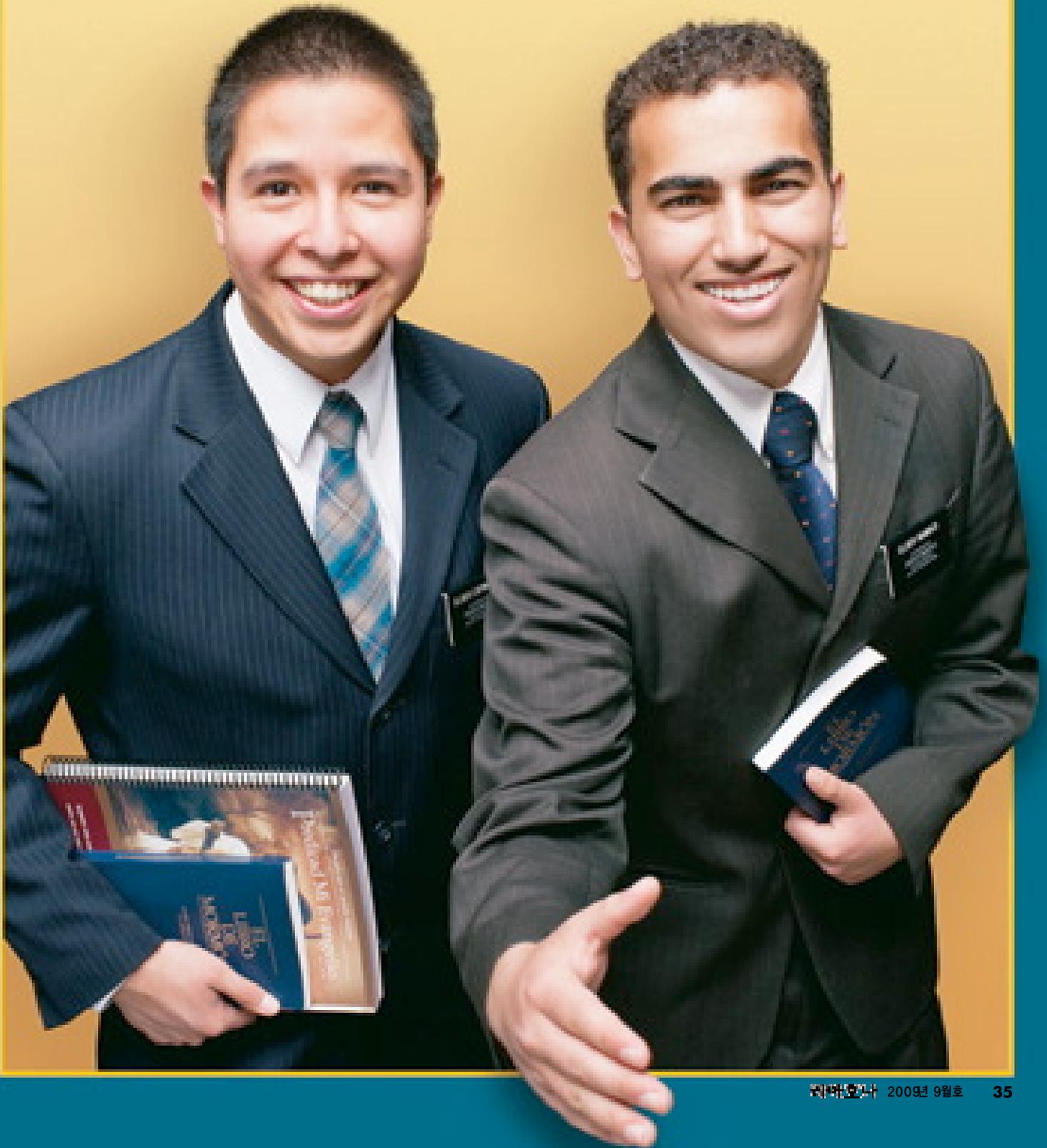
결심한 후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한다면 여러분이 외치는 경고의 음성은 그들의 귀에 가 닿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이며, 탈곡기가 가득 찰 때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노력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이 침례의 물에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한 말을 잊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준 느낌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가족은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197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발췌: 인용, 구두법, 단락 짓기 및 대문자는 표준에 따름.

여러분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임 선교사로서 우리는 기꺼이 복음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저희를 소개해 주십시오. (교리와 성약 18:16 참조)



네 가지 말씀, 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다

매년 4월과 10월이면 수백만 후기 성도들은 주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난 수년간 열렸던 연차 대회에 참석하며 삶이 변화된 네 명의 형제 자매들을 소개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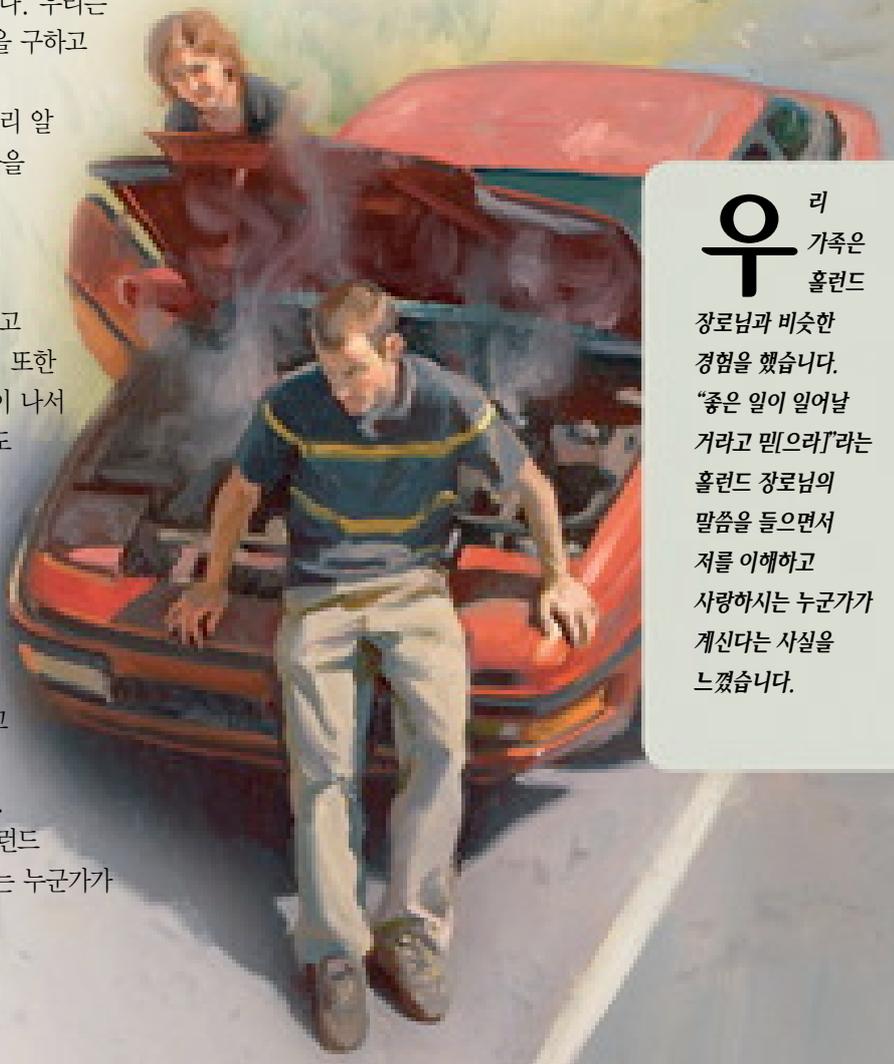
석 사 학위를 받은 남편은 계속 박사 과정을 밟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석사 학위를 따기까지 너무나 벅찼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좋은 직장을 구하고 장차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해 10월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코네티컷 주로 이사를 하며 겪었던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저희도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코네티컷 주로 이사를 한 터였습니다. 장로님은 그때 자신과 가족의 전 재산을 작은 자동차 안에 다 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차가 두 번씩이나 과열로 고장이 나서 길 위에 멈췄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자동차도 정확히 두 번 고장이 나서 멈춘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최근에 튼튼한 자동차를 몰고 30년 전에 차가 멈춰 섰던 바로 그 장소를 지난 경험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머릿속에 젊은 아빠였던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올랐고 이렇게 말했던 내용도 기억났다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 이 친구야. 물러서면 안 돼. …… 도움의 손길이 네 앞에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 30년 동안 정말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될 거야. …… 실망하지마. 끝까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믿어.”¹ 홀런드 장로님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저를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누군가가

계신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홀런드 장로님께서 보여 주신 모범에서 저희는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인지 영의 증거를 간구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아이 둘을 더 얻은 후에 남편은 박사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공부는 힘들었지만 저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희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연차 대회 이후로 저는 이따금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지자와



우 리 가족은 홀런드

장로님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라]”라는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누군가가 계신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사도들의 권고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

멜린다 맥러플린, 미국 메릴랜드 주

할머니에게 고마워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 저는 할머니께 편지 쓰는 일을 참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일 년에 한 번 뵙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된 이후로 바빠지면서 편지를 자주 쓰지 못하게 되었고 할머니와도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며칠 간 우리 집에 묵으러 오실 때에도 이따금 이런 저런 질문을 하거나 내 생각을 말씀드릴 뿐 진심 어린 대화나 속 깊은 말은 좀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열여섯 살이 되면서는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어지고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도 서먹하기만 했습니다.

한번은 할머니가 다녀가시던 마지막 날에 저 혼자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인사는 드렸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대화를 하고 싶으신 눈치였습니다. 그 동안 그럴 기회를 엿보아 오신 듯했지만 저는 공통 관심사가 없는 일흔다섯 되신 할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요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 끝에 저는 할머니가 제 또래였을 때 어땠는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사고 생활과 일에 대해 말씀하시며, 할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이었던 할머니의 삶과 꿈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열린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조부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며 패커 장로님은 연세가 드신 교회 회원들이 나눌 수 있는 지혜와 도움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장로님의 말씀 덕분에 저는 할머니와 제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소중한 가족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 일에 소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다시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여전히 막막했지만 그냥 직장, 친구와 가족,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썼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쓴 모든 편지에 답장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친척 이야기며, 할머니의 정원, 매일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할머니를 뵈었을 때는 대화를 나누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연차 대회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연차 대회를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주의 깊게 듣고 가르침 받은 대로 따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권고를 더 잘 이해하고 그 권고를 따르기 위해 말씀을 한 번 이상 듣거나 읽으십시오. 그러면 지옥 문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암흑의 권능이 여러분 앞에서 흠어질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21:6 참조]”

폴 브이 존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연차 대회의 축복”,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52쪽

제가 할머니와 다시 친해지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연차 대회 말씀을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패커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할머니가 바로 “경험과 지혜와 영감이 깃든,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원”²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할머니의 참 가치를 이제서야 깨닫고 할머니의 모범과 사랑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

로라 에이 오스틴, 미국 유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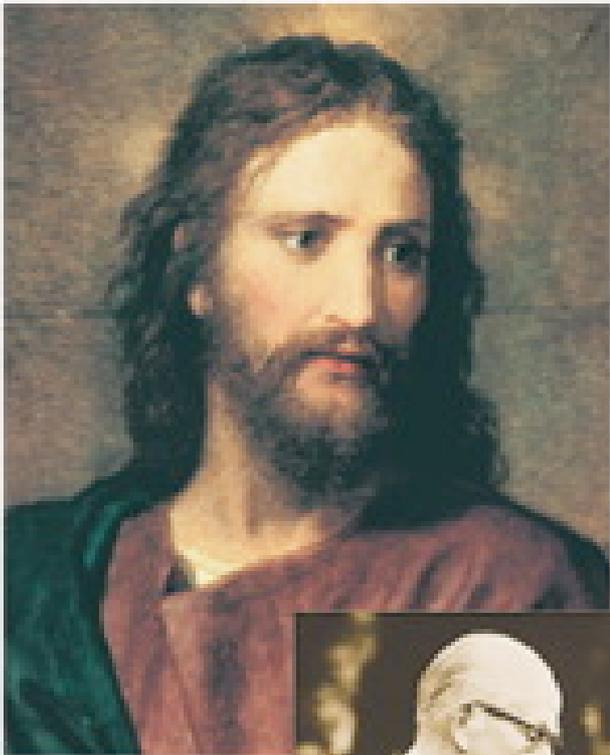
직접 간증을 얻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선교사로 떠날 당시 제가 지닌 간증이라고는 구원의 계획과 물몬경에 관한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간증의 깊이가 제 욕심에 못 미친다는 걸 잘 알았기에 선교사로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 있던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연차 대회 방송 모임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재방송하는 모임에 참석하여 프랑스어로 통역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웨일즈 지방에서 영어로 선교 사업을 하게 된 저는 선지자이신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자 회원들은 솔트레이크시티 태버네클에 모인 사람들과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저는 커다란 기쁨과 소속감을 맛보았습니다. 그 느낌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임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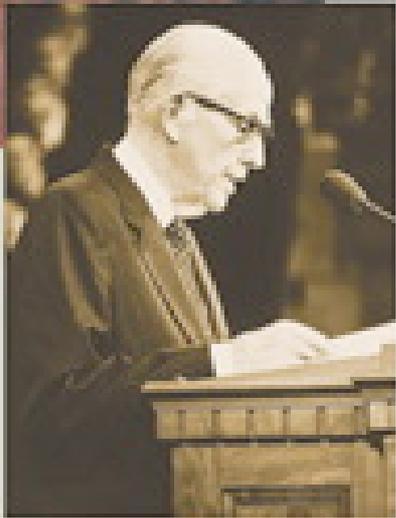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



말

씀을 시작하려는 분이 과연

주님의 선지자인지 증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벤슨 회장님이 그분의 선지자인지 알게 해 달라고 간구해 보면 어떨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모로나에서 10:4)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혹시라도 제 질문이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끝에 그래도 한 번 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는 주님께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는 분이 과연 주님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지 증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잠시 후, 크나큰 평화와 행복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눈을 뜨고 벤슨 회장님이 물문경에 대해 간증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신 선지자를 통해 교회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얻은 저는 연차 대회를 마치고 나오며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제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선교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고 앞으로 다가올 연차 대회들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님의 종들이 전하는 성스러운 말씀이 실린 교회 잡지가 배달되는 날만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

티에리 호츠, 프랑스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200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클라우드 알 엠 코스타 장로님께서 매사에서, 특히 가정에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³ 말씀 말미에 장로님은 노마 코넛 마렉이 지은 시를 일부 인용하셨는데, 그분의 말씀과 시구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부모님과 자매들,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도 물론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데에는 인색한 편이어서 적어도 매일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가족과 친구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자주 들을 필요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만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후에는 계속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 간 코스타 장로님의 말씀을 따른 덕분에 저는 주변 사람들과 돈독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고향 코스타리카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그리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사랑하며 저도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제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을 느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지도자들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을 따르면 우리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우고 리노 리베라 메나 장로, 아이다호 보이시 선교부

주

1. 제프리 알 홀런드, “장래 좋은 일의 대체사상”, *리야호나*, 2007년 1월호, 45쪽.
2. 보이드 케이 페커, “인생의 황혼기”, *리야호나*, 2003년 5월호, 83쪽.
3. 클라우드 알 엠 코스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리야호나*, 2007년 11월호, 73쪽.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가 신권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는 사이러스 에이치 휘락이 작사한 “너 이스라엘 장로는”입니다. 3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빈한 자와
추위에 떠는 자 찾아 나가서

“그것이 바로 저의 종교입니다. 성신은 저에게
그들을 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원리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종교, 간증은 절대
여러분을 하나님의 해의 왕국으로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가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²

사이러스 에이치 휘락은 이 모임에 참석하고

바로 우리의 종교입니다

시온의 기쁜 소식 다 전하여
길이 길이 함께 살아 가리라

1856년 10월 연차 대회가 열리기 전 토요일,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와 몇몇 귀환 선교사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브리검 영 회장님에게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가 섞인 수백 명의 개척자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계곡을 향해 먼 길을 오고 있으며, 이들은 길 위에서 때 이른 겨울을 맞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려 있었고 많은 손수레와 마차들이 부서져 내려앉았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되지 않으면 정말 모두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영 회장님은 그날 대회 동안 말씀할 모든 연사들에게 개척자들이 겪고 있는 곤경에 대해 말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 회장님은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흩어진 성도들을 찾기 위해 10월 7일,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난 첫 번째 구조대에 합류했습니다.

구조대를 지휘했던 조지 디 그랜트는 훗날 영 회장님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듣게 되실 것이므로 제가 이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오륙백 명 가량의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이 눈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길에서 손수레를 끄느라 기진맥진해 있고, 길가에 실신해 있으며, 추위에 얼어붙은 채 쓰러져 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들은 추위로 손발이 얼어붙고 발에서 피가 나며 몇몇은 눈과 추위 속에서도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감정이 무딘 우리가 보기에 그 광경은 너무나 참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심도 절망도 하지 않으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³

교리와 성약



메시지



브리검 영 회장님은 난관에
부딪친 개척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떠난
회원들에게 우리의 종교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상황과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영 회장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의
교회 회원으로서 항상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궁핍한 사람들
구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 장로는”의 가사는 1856년, 이 역경의 나날 동안 휘락 형제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조대는 그야말로 지치고 굶주리며 추위에 떠는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개척자들을 북돋아 주고 솔트레이크 계곡에 있는 시온으로 향하도록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함

제트기로 유럽에서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하루도 채 안 걸리는 우리 시대에는 상황과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영회장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의 교회 회원으로서 항상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구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 막 교회가 회복되었던 시절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기억하라. 이는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님이라.”(교리와 성약 52:40)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일요일마다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말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다음과 같은 베냐민 왕의 말은 여전히 진실됩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이나라.]”(모사이사서 2:17)

주님은 누군가의 삶을 축복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자 하실 때 이웃이나 친구 또는 가족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구원을 주시는 한 방법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여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9)는 큰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때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힘을 다하여 낫을 휘두르는 자, 그는 곳간에 쌓아 두는 자니, 멸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에 구원을 가져 오느니라.”(교리와 성약 4:4)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곧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찾음

다른 이에게 손을 내밀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도울 방법은 많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과 우리를 축복하는 많은 기회를 주님께서 알려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요르단에 있는 교회 인도주의 선교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회에서 저는 뜨개질을 하는 두 자매님을 보았습니다. 그 두 분은 조그마한 신생아용 모자를 뜨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르단 수도인 암만 북쪽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하루에 50여 명의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무척 가난해서 분만한 뒤에 엄마와 아기는 난방시설이 없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아기들 중 상당수가 질병에 걸리고 체온이 떨어져 사망합니다. 저는 자매님들에게 뜨개질 견본을 두 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뜨개질 견본을 상호부조회로 가져갔습니다. 전세계 곳곳에 있는 상호부조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는 하지만, 저는 또다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성탄절기 동안 인근 와드의 수많은 자매님들이 아기 모자를 뜨개질하고 바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들은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나 교회 활동에서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에게 안부를 묻자, 그 친구는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기 모자의 ‘희생자’랄세. 밤낮으로 아기 모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주위에 온통 아기 모자들뿐이야.” 한 자매님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중동은 따뜻하지 않나요?” 제가 모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자 그분도 역시 모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르단으로 돌아갈 때 제 여행가방에는 80개가 넘는 아기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아병동의 수석 고문에게 전달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기 모자를 선물해 주셨다고 여겼습니다. 얼마 전, 요르단은 16년 만에 결빙 온도보다 훨씬 낮은 혹한을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미는 손길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일은 연령이나 건강, 시간, 기술, 재정의 제약 없이 가능합니다. 열의가 있는 모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직되어 있는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후한 금식 현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픈 친구를 병문안하고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로서 가족들과 자매들을 충실히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역경으로 힘겨워하는 친구를 일요일 모임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전임 선교사와 함께 일하고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봉사에 좀 더 자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들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가르치며 빛 안에서 견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손을 내미는 일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전화를 걸거나
간단한 쪽지를 남기는 것과 같이 쉬운 일입니다. 너무나 바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없는 경우는 정말로 너무
바쁜 경우에만 한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는
구주의 권고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 백성의 빛이 되라. 산
위에 놓인 성읍이 숨기를 수 없느니라.

“보라, 사람이 촛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에 두느냐? 아니라,
오히려 촛대 위에 두나니, 이에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두에게
비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빛을 이 백성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제3니파이 12:14~16)

시온과 영생이 어디 있는지 가리킴

단순히 다른 이를 염려하는 것도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우리는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주변 사람의 복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선을 행하고, 손을 내밀고, 우리 힘과 능력에 따라
영적인, 육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곧 다른 사람에게 시온이
어디인지 가리켜 주는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대표하는 것들에 매료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 덕분에 그들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간증이
커지거나 강화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충실하라. 내가 너를 임명한 그 직분을 수행하라.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

“그리고 만일 네가 끝까지 충실하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마련해 놓은 거처에서 너는 불멸과 영생의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81:5~6)

진실로 우리의 종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

1. “너 이스라엘 장로님”, 찬송가, 200장.
2. 브리검 영, “Remarks Deseret News, 1856년 10월 15일자; 또한 LeRoy R. Hafen and Ann W. Hafen, Deseret News, *Handcarts to Zion*(196년), 120~121쪽 참조; LaRene Porter Gaunt and Linda Dekker, “Go and Bring Them In”, Deseret News, *Handcarts to Zion*, *Ensign* 2006년 12월호, 43쪽.
3. *Handcarts to Zion*, 228쪽.



구원의 사명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하고 구조받을
만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에서 다른 이들을 구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다른 사람들을 구해 줘야 할
우리의 사명”,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59쪽.



교회? 아니면 여자 친구?

외 할머니는 1962년에 교회에 들어오셨다. 할머니의 자녀들도 침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저활동이 되었다. 수년 후, 그들 중 하나인 이모가 코스타리카에서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다시 활동 회원이 되었다.

1991년 당시에 십대였던 나는 이모를 만나러 갔다. 그곳에 있는 동안 이모는 내게 선교사들을 소개해 주었고, 이모 집에서 선교사들을 몇 차례 만나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복음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지 물었지만, 나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코스타리카로 돌아오자 이곳 선교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가 내 주소를 알려 주셨던 것이다.) 나는 여전히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4년이 흘렀다. 나는 수년 동안 친구로 지내던 한 여성과 만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내 약혼하게 되었다.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영적인 것들에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고 약혼녀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배우기 위해 함께 교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하나님께 당신에 대해 알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면밀하게 알아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들이

약 혼녀는 침례 받겠다는 내 결정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내게 자신과 교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다시 문을 두드렸다. 선교사들이 또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 나는 화가 나서 당장 가라고 소리치며 문을 닫아 버렸다. 바로 그 순간, 한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해 왔잖아. 만약 선교사들이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면?'

나는 다시 문을 열고 장로들을 불렀다. 그리고 들어와서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선교사들이 가르친 진리에 내재된 큰 힘을 발견하고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였다. 3주 후인 1995년 3월 12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여자 친구는 내 결정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석 달여가 지난 어느 날 밤, 내게 자신과 교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 고심 끝에 교회를 선택했다.

옳은 결정을 했다고 느꼈지만 헤어진 후 내가 보낸 몇 달은 인생의 암흑기였다. 그렇지만 새로 찾은 종교에 따라 살아가면서, 특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희망을 찾았다.

침례 받고 1년 후,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니카라과에 있는 선교부로 떠났다.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커다란 기쁨을 얻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더 크게 자라났다. 니카라과에서 돌아오고 몇 달 후, 훗날 아내가 된 릴리를 만났다.



우리 삶에서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는 일은 늘 쉽지 않다. 나는 여러 번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 희생할 때마다 그분께서 우리와 우리 삶에 대한 뜻을 알려 주신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 행복이 찾아온다. 그분의 계명은 늘 노력해 따를 가치가 있다. ■

다iego 올티즈 세구라, 코스타리카

가장 값진 것

내가 구주의 그림을 선택하자 내 형제자매들 중 몇몇은 키득거렸다. 엄마 아빠가 남기신 유품 중 모두가 마음에 두고 있던 물건은 다른 것들이었다. 그 물건들은 지금도 값이 꽤 나가는 것들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주 후 우리는 어머니가 생전에 사시던 옛 집에 함께 모였다. 아버지는 5년 전인 2007년에 돌아가셨다. 이제 그분들의 유품을 나눌 시간이었다. 우리는 제비 뽑기를 한 후 물건을 골랐다. 가장 낮은 숫자를 뽑는 사람이 제일 먼저 골랐다.

침구세트가 첫 번째였고 뒤이어 냉장고, 식탁과 의자, 신형 자동차가 선택됐다. 나는 연주를 하진 못하지만 피아노를 선택했다. 자라는 동안 우리는 집에서 음악을 즐겼다. 아버지는 와드 음악 책임자로 봉사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부모님 두 분 다 노래를 잘하셨다. 아버지는 목소리가 우렁찬, 긴장한 분이셨는데, 노래할 기회를 거절하시는 법이 없었다. 피아노는 내게 매우 의미 있는 물건이었고, 구주의 그림도 그랬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¹ 사본과 나란히 액자에 걸려 있던 그 그림은 우리가 앉아 있던 거실 벽에 걸려 있었다.

그 상황에서 나는 구주와 구원의 계획, 그리고 부모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분이 우리를 키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과 모범을 보여 주신 기억을 떠올리자 마음이 저리도록 고마웠다.

아버지는 감독으로 부름 받으셨을 때 스테이크 회장님께 이미 나이가 70세임을 일깨워 주셨다. 아버지는 “제 생각엔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스테이크 회장은 “솔트레이크시티에 계시는 총관리

역원들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답하셨다. “형제님은 우리의 1순위도 2순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는 것을 아신 아버지는 훌륭한 감독이 되셨다. 아버지에게는 어떠한 화려함도 없으셨다. 경전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셨다. 그저 와드 회원들을 가슴 깊이

그림을 뒤집어 본 그 순간, 이 그림은 내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사랑하는 겸손한 분이셨다.

아버지가 감독으로 봉사하시는 동안 나는 우리 스테이크의 다른 와드에서 감독단 보좌로 봉사했다. 지도자 모임에 함께 참석하면서 부자간의 관계는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다.

1994년에 감독으로 부름 받으셨을 때 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힘겨워하고 계셨다. “이 부름이 제게 5년의 삶을 더 보장해 줄까요?” 아버지가 장난스럽게 스테이크 회장님께 물으셨다. 아버지는 감독에서 해임되고 2년 뒤에 돌아가셨다.

부모님의 유품을 모두 나누자 이런 기억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구주의 그림을 걸어 둘 적당한 장소를 살펴보았다. 그림을 뒤집어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것은 아버지에게 헌정된 그림이었다. “우리는 테일러 감독님을 큰 체구 못지않게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스테이크 회장단의 서명이 있었다. “코리 회장, 카터 회장, 스티브스 회장.”

그 순간 이 그림은 내게 더 큰 의미로 다가 왔다. 지금도 이 그림은 우리 집 벽에 걸려 있다. 부모님의 피아노가 있는 바로 그 위에 말이다. 우리의 옛날 집에는 아직까지 가져오지 않은 물건들이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내게는 바로 가장 값진 것이 있기 때문이다. ■

레이 테일러, 미국 유타 주

주

1.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야호나, 2007년 4월호, 2~3쪽.

마침내 받아들인 권고

우리 가족과 2005년 십일조 결산을 하시던 감독님은 이렇게 물으셨다. “몰몬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나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책임과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두 사내 아이를 돌보며 가정에서 해야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 막 이야기하던 참이었다. 매일 몰몬경을 한 장씩 읽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망설이며 말했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지난 몇 개월간 좋은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분명히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려고는 하지 않았다.¹

새해가 시작되자 영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내 자신이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지자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몸을 씻으라고 권고했지만 나아만은 그 간단한 일을 처음에는 거부하지 않았던가!(열왕기하 5:1~14 참조) 몰몬경 읽기도 그와 같이 간단한 일이 아닌가!

그 다음 금식 주일에 몇몇 형제자매들은 자신의 삶에서 선지자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간증했다. 내가 선지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놓쳐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2006년에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고 결심했다. 힝클리 회장님처럼 몰몬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해가 끝나갈 무렵 내가 세웠던

목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대로만 해 나간다면 연말까지 몰몬경을 한 번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몰몬경을 읽으면서 나는 다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통찰력을 얻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더 가까이 다가갔고, 몰몬경을 읽고 그 책이 참되다는 간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해 동안 복음을 나눌 기회도 더 많았다.

2005년에 곧바로 힝클리 회장님의 권고를 따랐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나아만이 결국은 요단강 물에 몸을 씻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훨씬 더 빨리 몰몬경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

그렇지만 나는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그것이 아주 간단한 일이더라도 말이다. 새해에도 다시 몰몬경을 읽으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리라 기대한다. ■

제니퍼 개렛, 미국 캘리포니아 주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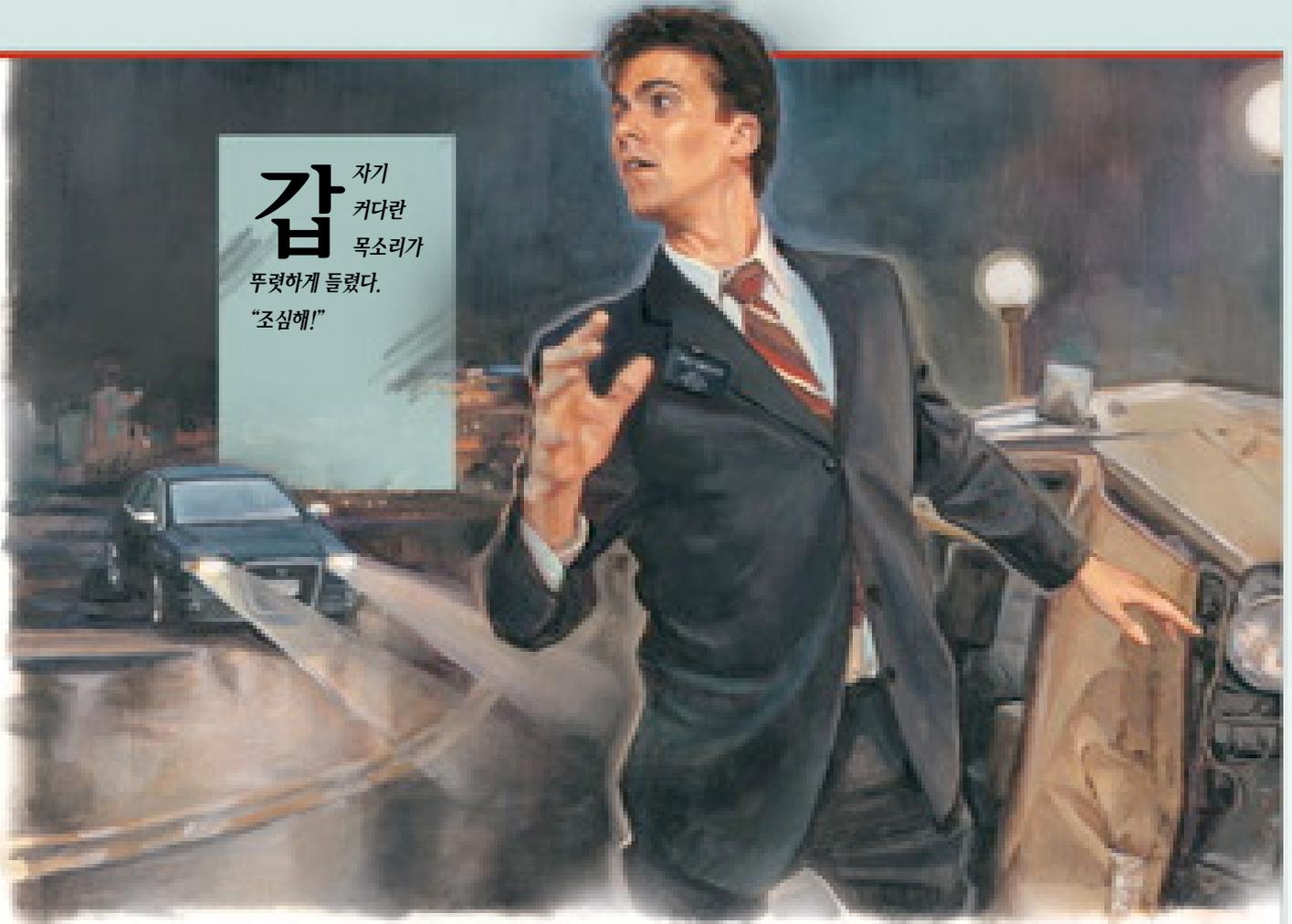
1. 고든 비 힝클리,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야호나, 2007년, 8월호, 6쪽 참조.

조심해!

1991년 7월 23일 저녁, 찰스 라슨 장로와 나는 귀환하는 선교사를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내려주고 숙소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그때는 겨울이었는데, 뉴질랜드에는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오클랜드와 타카푸나를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인 하버브리지를 향해 차를 몰았다. 다리 하단에 있는 커브 길에 다다랐을 무렵 소형차 한 대가 빠른

갑 자기
커다란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조심해!”



속도로 우리를 지나갔다. 속도를 내던 그 차는 방향을 틀 찰나 그만 도로가 비에 젖어 있던 터라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왼쪽으로 돌다가 오른쪽으로 세차게 돌면서 다리에 설치된 시멘트 방벽에 부딪쳤다.

방벽에서 세차게 튕겨져 나온 차는 굴러 미끄러지다가 멈춰 섰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몹시 놀란 나는 즉시 기어를 중립으로 당기고 비상등을 켰다. 본능적으로 라슨 장로와 나는 도울 일이 있는지 보려고 차에서 내렸다. 우리가 그 차 가까이 가기 전에 한 남자가 깨진 창 밖으로 기어 나왔다. 그리고는 다리를 내려가 물가로 가더니 어둠 속으로 이내 사라졌다. 그 남자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나는 사고가 난 소형차로 걸어갔다.

차는 조수석 문이 위로 향한 채 옆으로 누워 있었다. 창문이 깨져 버린 그 차 안에 혹시 누군가 있는지는 않은지 보려고 차 위에 올라섰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조심해!” 나는 깜짝 놀라 차에서 급히 뛰어내렸다. 그러자마자 또 다른 차가 빠른 속도로 커브 길을 돌더니 내가 들여다보던 그 사고차량을 들이받아버렸다.

길이 굽어 있고, 높은 시멘트 방벽에 가려서 운전자들은 전방에 있는 사고차량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뒤이어 다른 차들이 연쇄 충돌을 했다. 라슨 장로와 나는 재빨리 그 길에서 빠져 나와 다른 운전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정지 신호를 보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우리는 그 차가 도난 차량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속소로 돌아온 나는 그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라슨 장로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쳐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자 라슨 장로는 휘둥그레한 눈으로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솔버그 장로님,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장로님 가까이에 있지도 않았고 커브를 돌던 차도 못 봤어요.”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함을 느끼며 잠시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 그대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경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는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수 차례 간증을 전했다. ■

마크 에이치 솔버그, 미국 유타 주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여기 나온 제언들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주기 위한 것이며, 가족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한 가족이 남긴 봉사의 유산”, 8쪽: 이 이야기를 요약하여 들려주면서 가족이 보여준 훌륭한 모범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강조한다. 종이에 여러 이름을 적고, 앞으로 자녀가 생기면 붙여 주고 싶은 이름을 몇 개 고르라고 한 뒤, 자신만의 가족 가계도를 만든다. 자녀들이 모범을 보이고 간증을 갖는 일이 그들의 후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조상과 후손을 연결해 주는지 토론하며 마무리한다.

“서로 알아가는 친구”, 31쪽: 비슷한 물건 여러 개와 함께 완전히 다른 물건 하나를 섞어서 늘어 놓는다. 다른 물건 하나는 금방 눈에 뜨인다고 설명한다. 해당 기사를 읽는다. 다음 문장이 무슨 뜻인지 토론한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다른 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에 관해 배우고 싶은 소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훌륭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입니다”, 40쪽: “끊임없이 기회를 찾음” 부분을 읽고 일주일 동안

‘봉사’라는 보물을 찾아보라고 제안한다. 봉사 횟수를 세기 위해 그릇 하나와 콩 또는 조약돌 몇 개를 준비한다.

“끊임없이 기회를 찾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토론한다.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집, 학교, 직장,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한 가지 봉사를 끝낼 때마다 콩 하나를 그릇에 넣을 수 있다. 그 다음 주에 콩이 몇 개나 모였는지 세어 본다.

“모닥불 이야기와 간증”, 친4쪽: 담요를 사용하여 텐트 안에 앉아 있는 상황을 재현한다. 공과를 하면서 먹을 간식을 내놓는다. 본 기사를 읽고 가족 두 명에게 켄트와 브렛의 대화를 역할극으로 해 보게 한다. 성신은 우리가 언제 간증을 나누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려 줄 수 있다고 간증한다. 성신의 속삭임을



이번 호의 주제들

각 페이지는 기사의 첫 페이지를 뜻합니다.

친 = 친구들	사랑, 36, 40, 친2
가족, 8, 36, 45, 친2, 친8, 친10, 친14, 친16	선교 사업, 26, 28, 32, 35, 친4
간증, 2, 13, 14, 36, 친4	선지자, 18, 36, 친6, 친8, 친16
감사, 45	성전 사업, 14
개종, 8, 28, 31, 44	여성, 2
결심, 25, 44	연차 대회, 36
게시, 18	영감, 28, 47, 친6, 친10
교회 역사, 18, 40, 친6	음악, 친10
기도, 36, 44, 친10	조셉 스미스, 친6
모범, 2, 8, 31, 친14	준비, 14, 친13
물몬경, 13, 46	친구들, 31
복음, 25	철십인, 18
봉사, 2, 8, 14, 40, 친2, 친14	침례, 26, 32

반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 속삭임을 따르도록 권유한다.

“루시가 위로받았어요”, 친10쪽: 본 기사를 읽고 루시 엄마의 다음 말을 다시 읽는다. “네 기분이 나아지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신 분은 바로 성신이란다.”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와 성신의 인도가 필요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보라고 한다. 가장 좋아하는 초등학교 노래를 함께 부르며 마무리하고 기도와 성스러운 음악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는지 그 힘에 대해 간증한다.

복음을 함께 공부하십시오

“일

요일 저녁은 가정의 밤을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월요일 저녁에 교회 건물과 시설을 개방해서는 안 됩니다. 와드나 스테이크 활동도 계획해서는

안 되며, 가정의 밤에 방해가 되는 일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가정의 밤에서 우리는 가족이 함께 복음을 공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권고하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경전입니다.”

제일회장단 서한, 1994년 8월 30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정의 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정의 밤에 대해 기술하여 liahona@ldschurch.org에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루이스 파커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었느냐? II'로 구매상을 수상했다.

교회, 국제 예술 경연 대회 선정작 전시

교회 역사 박물관이 주최하는 제8회 국제 예술 경연 대회 전시회가 2009년 3월 23일에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 1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들을 기억함"이다.

올해 경연 대회에는 전문 및 비전문 회원 예술가들이 약 1,100명 작품을 출품했다. 심사위원단은 출품작을 평가하여 전시장에 내놓을 266점을 선정했다. 박물관 선임 전시 계획자인 로버트 데이비스는 선정된 작품의 3분의 1은 미국 이외의 44개 국가에서 출품된 작품이라고 전했다.

심사위원들은 복음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 세계 문화와 미적인 전통, 양식, 매체를 표현하는 새로운 작품들을 기대했다. 대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회화, 데생, 조각, 바느질, 목각 등의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있다.

전시된 입체작 중에는 밧에 마구가 채워진 채로 서 있는 두 마리 말을 형상화한 청동상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도나 모이어가 퀼트 작품인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감독이 연로한 회원에게 들려야 한다는 영감을 받고는 밧에 말을 둔 채로 떠난 모습을 작품으로 구상한 것이다. 또 한 작품은 시리아에서 출품된 아르메니아의 별 문양 레이스이다. 이 레이스는 작가가 어머니로부터 배운 주님의 위대하신 것을 상징한다. 레이스 짜기를 가르친 것은 바로 작가의

어머니였다. 우루과이의 한 회원은 성전 결혼과 인봉 권능을 상징하는 목각 작품을 출품했다. 한 헝가리 회원은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 주는 여성의 그림을 출품했다. 그 그림은 어린이 노래책에 실려 있는 한 노래 가사에서 비롯되었다.

데이비스 형제는 이번 대회에 출품된 작품들이 서로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졌지만 모두 복음에 관한 공통된 주제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멕시코의 후발 아빌레스 사엔즈는 *회장 저편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라는 그림으로 구매상(Purchase Award)을 수상했다. 그 그림에는 조상을 기리기 위해 묘소로 꽃을 들고 가는 한 여성이 나온다. 아빌레스 형제의 아들인 레오나르도가 아버지 대신 시상식에 참석했다. 레오나르도는 그의 아버지가 죽은 자의 날(멕시코에서 고인을 기리는 명절)을 맞아 조상을 기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 성전 사업을 행하여 조상의 삶을 기리는 한 여성을 묘사하려 했다고 말했다.

역시 구매상을 수상한 기도의 영은 브라질의 클라우디오 로베르토 아귀아르 라미레즈의 작품으로, 니파이의 세 가지 모습을 표현했다. 첫 번째는 니파이가 배를 만들면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간구하는 모습이며, 두 번째는 폭풍이 치는 동안 배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세 번째 그림은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 기도하는 니파이가 나온다.

라미레즈 형제는 각 장면을 그린 이유를 설명하며 “[니파이는] 늘 주님께 감사드렸고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꼈었죠.”라고 말했다.

미국 유타 주의 아담 아브람은

예술 경연 대회 수상자

구매상

후발 아빌레스 사엔즈, 멕시코,
회장 저편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카산드라 발니, 미국 유타 주,
속죄
친 타이 쉐, 대만,
많은 백성이 가며
로즈 데이톡 달, 미국 버지니아 주,
피신
라몬 엘리 가르시아 리바스, 에콰도르,
가오리다 대답하리
필리베르토 구티에레스, 미국 텍사스 주,
예수께 오라
마이클 톰 맘, 미국 유타 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에렌디아 데 마르티네즈 헤르난데즈, 멕시코,
누구도 예외 없이
에밀리 맥피, 미국 유타 주,
하늘 문
바렌티나 오렉시브나 무시엔코, 우크라이나,
오 시온의 자매여
루이스 파커, 남아프리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II
엠마리 로즈 글라우서 파웰, 미국 유타 주,
조셉 윌리엄 빌리 존슨: 주님께 기록함
클라우디오 로베르토 라미레즈, 브라질,
기도의 영
게이린 로렌 리베이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
아이 멩 차이, 대만,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
콜린 윌리스, 호주,
그리스도의 오심
엘스페스 영, 미국 유타 주,
이 때를 위함
조세퍼스 매투스 윌헬무스 반 게머트, 네덜란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공로상

아담 아브람, 미국 유타 주,
깃세마네
루벤 알프레도 카브레라, 우루과이,
영원히 함께
제이미 데이비스, 미국 몬테나 주,
십팔부쉬 가의 컬트
제이콥 엘튼 돕슨, 미국 인디애나 주,
신앙개조 2조 및 3조
트레이시 앤 홈즈,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세 개의 동산
아이린 몬스 젠킨스, 미국 유타 주,
가보로 물려줄 유아 축복 드레스
루레인 라이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동산 무덤
도나 모이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남디 오크교, 나이지리아,
사탕
캐서린 베이트먼 피터슨, 미국 유타 주,
생명
윌터 클레어 레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충실하며 견디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제이 킬크 리차즈, 미국 유타 주,
천국에서 큰 자
랜달 토드 스티븐스, 미국 유타 주,
구주 상
리로이 트랜스필드, 뉴질랜드,
요셉과 소년 예수
레사 유달, 미국 유타 주,
청아한 새 소리 들을 때나
레베카 왁스텝, 미국 유타 주,
통로
윌리엄 휘태커, 미국 일리노이 주,
7대: 검정 드레스를 입은 레이첼
쉐리 윌리엄스, 미국 유타 주,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블랑쉬 윌슨, 미국 유타 주,
나는 기억합니다
제니스 로렌 윈더리치, 미국 오키오 주,
위대한 어머니



우루과이의 루벤 알프레도 카브레라가 목각작품인 '영원히 함께' 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셋세마네라는 그림으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고통에 관한 그림이 아니라, 고통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아브람은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을 구주께 도움을 받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물관은 18개 작품에 구매상을 수여하여 소장품을 추가했다. 심사위원단은 3월 20일 금요일에 열린 환영회에서 20개 작품에 공로상을 수여했다. 전시 마감에 임박할 무렵에는 세 작품에 대해서 방문자들이 뽑은 인기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교회는 1987년 이후 매 3년마다 전 세계 예술 경연 대회를 개최해 왔다. 박물관이 대회를 열게 된 본래 의도는 예술 소장품을 늘리기 위해서이다.

데이비스 형제는 “저는 모든 전시회에 참여해 왔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시도이죠. 저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성과를 가져오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전시회가 교회 역사 박물관에서 열렸다. 하지만 예술 경연 대회 참가자들이 늘어나면서 올해에는 더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 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작품은 4월과 10월 연차 대회 동안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회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60 West North Temple에 소재한 컨퍼런스 센터 중앙홀에서 열리며, 방문자들은 15번 문으로 입장할 수 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보다보면 정말 흐뭇해집니다. 예술은 개인적인 것이며, 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작품은 작가의 독창성이 두드러지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라고 데이비스 형제는 말했다.

리아호나와 엔사인에는 종종 출품작 중 다수가 실리곤 한다. 올해 전시회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과거 전시회 작품들과 더불어 교회 역사 웹사이트인

www.lds.org/church-history/museum/competitions에서 감상할 수 있다. ■

교회, 스페인어 후기 성도판 성경 출판

헤더 휘틀, 교회 잡지

9월 1일, 새로운 후기 성도판 성경이 스페인어로 출시되었다. 제일회장단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교회 회원들에게 최신판 성경에 대한 25분짜리 특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것을 권고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다가오는 10월 연차 대회의 토요일 및 일요일 양일, 오전과 오후 모임 사이에 인공 위성을 통해 두 차례 방송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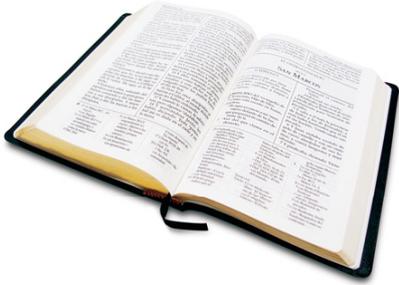
이 방송에서는 후기 성도판 스페인어 성경의 출시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혜택에 관한 내용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특별 메시지와 더불어 전해질 예정이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스페인어와 영어로 방송되며 시청 방법에 관한 정보는 단위 조직으로 발송될 것이다. 단위 조직에서는 회원들의 차후 시청을 위해 방송을 녹화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은 집회소 이외 장소에서 연차 대회를 시청하는 회원들을 위해 또는 추후에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이 최신판 성경은 9월부터 인쇄본, 전자 및 음성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80만부 이상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인쇄소에서 인쇄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배부 센터로 배송될 예정이다. 인쇄된 책들은 반양장이나 양장 또는 인조 가죽본으로 구할 수 있다. 이 최신판은 시력이 나쁜 사람들을 위해 점자 및 큰활자 형태로도 출시된다. 아직 4대 경전 합본은 출시되지 않았다.

경전 안내서가 포함된 이 최신판의 전자책은 Escrituras.ld에 ~~하~~불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인터넷 접속을 통한 핵심어 검색 기능도 있다. 성경 및 몰몬경 합본의 음성 자료는 교회 배부 센터에 있는 CD 세트 또는 Escrituras.ld에 ~~있는~~ MP3 파일로 구할 수 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에 따라 번역팀이 이 최신판을 준비하고 검토했다. 그들은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전문 언어학자 및 교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후기 성도판



새로운 후기 성도판 스페인어 성경에 관한 방송이 10월 연차 대회 모임 사이에 상영될 예정이다.

스페인어 성경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회원들이 현재까지 사용해 온, 이전 버전인 1909년판 레이나 발레라역을 토대로 만들었다.

1909년판 레이나 발레라역 스페인어 성경은 흥정역에 비해 기품 있는 언어로 되어 있어서, 의미와 용인성이 바뀐 어휘와 오래된 문법 구조를 대체하는 현대화 작업에 신중을 기울였다.

새로운 머리말, 주석, 교회의 모든 표준 경전에 대한 전후참조, 지도, 출판물 뒤쪽에 있는 기타 학습 보조 자료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회원들이 경전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신판의 제목은 “성경: 레이나-발레라역 2009년”이라 붙여질 예정이다.

제일회장단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본 최신판을 소유하여 정기적으로 하는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 시간과 교회에서 사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통해 배우고 가르칠 때, 여러분의 지식과 간증은 커질 것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은 증대되며, 더 큰 영적인 힘이 생길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SantaBiblia.lds.org 스페인어와 영어로 볼 수 있다. ■

이용 가능한 물품 목록

다음은 배부 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될 출판물 및 음성 자료 목록입니다. 주문 시에는 정확한 물품 번호를 사용해 주십시오.

반양장, 검정색(36547 002)	있음(08133 002)
양장, 검정색(36903 002)	반양장, 검정색, 시각 장애인용
인조 가죽, 검정색(36544 002)	초대형(21.6 cm X 27.9 cm)(36072 002)
인조 가죽, 적포도주색(36546 002)	점자책, 여러 권 한 세트(36547 004)
인조 가죽, 검정색, 반달 색인	구약전서 음성 CD(50021 002)
있음(08131 002)	신약전서 음성 CD(50022 002)
인조 가죽, 적포도주색, 반달 색인	

교회의 공식 라디오 온라인 채널 개설

김벌리 보웬, 교회 잡지

교회 공식 라디오 방송국인 Mormon Channel은 2009년 5월에 Radio.lds.org에 개설되었다. 새로운 방송국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에 있다. 몰몬 채널은 특별 제작된 신규 프로그램들과 교회 기록에서 나온 내용 및 데저레트북, 보니빌 인터내셔널, 데저레트 뉴스, 후기 성도 실업 대학, 브리검 영 대학교 캠퍼스 등의 공조 기관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방송국은 온라인상으로 매일 24시간 동안 방송하며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디시, 일리노이 주 시카고, 애리조나 주 피닉스, 워싱턴 주 시애틀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보니빌 라디오 채널에서도 HD 라디오[디지털 지상파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위성 라디오 및 모바일 장치를 비롯한 기타 배급 방법은 현재 검토 중이다.

교회에 중심을 둔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청취자와 연령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진행되지만, 몇몇 내용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도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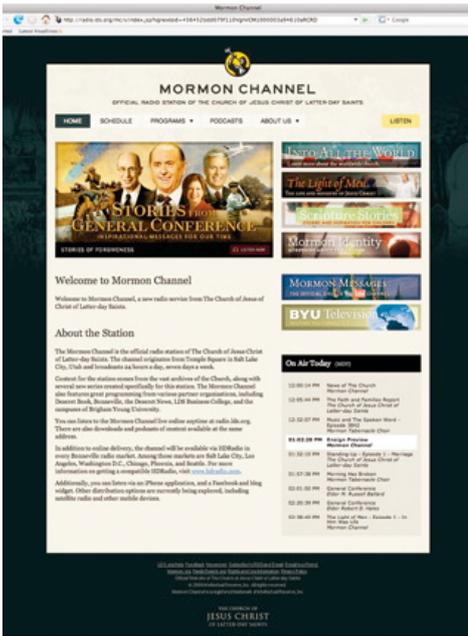
몰몬 채널의 프로그램 책임자인 립 보샤드는 “이것은 방송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채널은 11개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으며, 교회 뉴스와 같은 일부 프로그램은 하루 여러 차례 방송된다. 몰몬 정체성과 같은 기타 프로그램은 주 1회 방송된다.

여러 프로그램은 교회 지도자, 후기 성도 예술가, 전 세계의 충실한 회원들을 비롯하여 후기 성도와 관련된 사람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다룬다.

또한 몇몇 프로그램은 연차 대회 이야기, 구주의 삶과 성역을 극화한 이야기, 어린이를 위해 재구성된 경전 이야기 등을 다룬다. 한 프로그램에서는 음악과 함께 복음 주제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찬송가의 역사라는 프로그램은 교회 찬송가의 기원을 조명할 전망이며, 유산이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은 가족 역사 및 교회 역사부가 기록한 전 세계 충실한 교회 회원들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하루 종일 태버네클



2009년 5월, 교회의 공식 라디오 방송국인 몰몬 채널이 온라인상에 영어로 개설되었다.

합창단의 음악도 방송될 것이다.

보샤드 형제는 이 채널을 통해 윌포드 우드럽(1807~1898) 회장 및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의 말씀과 19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의 앨범과 같이 오래된 자료들도 방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의 온라인 일정은 방송 2주 전에 게시될 예정이다. 몰몬 채널의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Radio.lds.org에 접속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모든 교회 소유의 내용은 팟캐스트로 다운로드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 ■

교회, 병원을 돕기 위해 무툼보 재단과 손 잡아

교회와 디캬베 무툼보 재단이 맺은 새로운 협력 관계 덕분에 콩고 민주공화국 수도인 킨샤사 시에 있는 비암바 마리에 무툼보 병원과 연구센터에 수자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교회의 깨끗한 물 프로젝트를



교회와 디캬베 무툼보 재단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우물을 파기 위해 중장비로 작업하고 있다.

감독하는 매튜 힉스는 “우리는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기존에 병원이 사용하던 물에 우물을 추가로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립하도록 돕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2007년에 개원한 이 비영리 병원은 미 프로농구협회에서 18 시즌을 뛰고 올해 은퇴한 디캬베 무툼보가 꿈꾼 비전이다. 현재 이 시설에는 150개 침상이 있으며, 앞으로 300개를 수용할 계획이다.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한 모임에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한 무툼보씨는 “제 고향 사람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병원을 지었습니다. 이 우물 프로젝트는 현재 우리가 현지에 확보하고 있는 물을 보충하고 공공 급수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고갈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깨끗하고 소중한 물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콩고 민주공화국의 평균 수명은 46세에서 49세이다. 신생아 다섯 명 중 한 명 정도가 다섯 살을 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다.

병원은 급수의 양과 질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물의 사용 전후 관리 시스템을 이미 확보했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 시스템은 유량이 낮아서 병원 물탱크를 가득 채우지는 못한다. 이 프로젝트는 깨끗하고 지속적인 물량이 병원에 공급되도록 도울 것이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우물의 깊이는 91미터에 이를 것이며, 물은 5만 리터 용량의 고가탱크로 끌어올려진 후 중력에 따라 하루 24시간, 주 7일 동안 병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무툼보씨에 따르면 물 문제가 해결되면 병원이 특수 서비스를 추가할 능력도 증대된다고 한다.

그는 “킨샤사 시에는 투석 센터가 단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미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이 보충되면 일년에 수백 명을 수용하는 10개 침상으로 된 투석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인을 향한 디캠베 무툼보 재단의 진심 어린 염려를 느꼈습니다. 비암바 마리에 무툼보 병원이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돕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힝스 형제는 말했다.

이 병원에는 450명의 직원이 있으며 작년에는 환자 2만2천 명이 진료 받았다. 프로젝트가 완료되기까지는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뉴스 속 교회 소식

몰몬경, 과라니어로 출판

2009년 4월 29일, 제일회장단은 몰몬경이 과라니아어의 주요 방언인 과라니어로 출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과라과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제일회장단은 자신의 경전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하는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 시간과 교회 모임 및 임무 지명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이 몰몬경 완역본은 1982년 이래로 사용해 온 몰몬경 선집을 대체한다. 몰몬경 완역본은 현재 82개 언어로 출판되었다. 몰몬경 선집은 그 외 25개 언어로 출판되었다.

과라니어를 사용하는 회원들은 약 22,800명이며, 과라니어를 사용하는 단위 조직은 79개, 전세계에서 과라니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618만 명에 이른다.

구전되어 내려오는 과라니어는 과라과이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과라과이는 가족들의 문맹률이 문제가 되던 곳이었다. 교회는 과라니어로 된 몰몬경 음성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2010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

새로운 형식으로 이용하게 된 통가어 경전

2009년 4월,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담은 통가어 몰몬경 합본을 scriptures.lds.org으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통가어 몰몬경 합본은 불과 2년 전에 출판되어 통가어를 사용하는 약 8만 회원들과 통가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회원들이 혜택을 누렸다.

온라인판 통가어 몰몬경 합본에는 주석, 지도,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독자를 위한 경전 표시 기능과 핵심어 검색 기능도 있다.

통가어는 교회 경전 웹사이트에 추가되는 13번째 언어이다.

통가어가 추가되기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했던 몰몬경 합본은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헝가리어였다.

다른 언어들도 현재 온라인 출시를 준비 중이다. ■

교회, 플로리다 주 홍수 복구 작업 돕다

교회는 미 적십자사와 협력하여 홍수가 발생한 미국 플로리다 주 펜사콜라와 라이브오크에 청소 도구 세트를 배부하였다. 이 홍수로 두 명이 사망하고, 125 가구가 파괴되었으며, 500 가구 이상이 훼손되었고, 336개 도로와 25개 다리가 폐

쇄되었다.

잇따른 폭풍우로 플로리다 주 북부 강들이 범람하면서 홍수가 발생했다. 첫 번째 홍수가 발생한 후 악천후가 계속되면서 복구 작업이 지연되었다.

홍수 때문에 플로리다 주 전역 16개 군에 있는 가옥들이 파손되었다. 관계 당국은 여섯 개 군, 즉 칼혼, 콜롬비아, 해밀턴, 매디슨, 스와니, 월튼 군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선교사들은 모두 무사하며,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회원들도 없다. 몇몇 회원 가족들은 대피하여 친지나 다른 교회 회원들과 머물렀다.

손상된 가옥들 중 최소 100채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홍수로 파손된 교회 회원 가옥이나 교회 시설은 없었다. ■

토네이도가 강타한 아칸소 주에 도움의 손길 내미는 회원들

아칸소 주 포트스미스 스테이크의 50명에게 가까운 교회 회원들이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30명에게 부상을 입힌 미국 아칸소 주 메나를 관통한 토네이도 복구 작업을 도왔다. 부상 당하거나 사망한 회원, 선교사는 없으며 피해를 입은 교회 시설도 없다.

2009년 4월 9일 밤에 몰아친 토네이도로 회원 가옥 열 채를 비롯한 60여 가구가 파손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려 밤 사이에 피난처를 찾아 헤맸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토네이도는 시속 219킬로미터의 강풍을 몰고 왔으며, 이는 개량 후지타 스케일(역자 주: 토네이도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의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한다. ■

2009년 9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9년 9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부합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8쪽과 9쪽에 있는
“선지자는 가족이 강화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를 참조한다.

1. 성경의 선지자들은 우리 가족이 강화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 여러 시대에 걸쳐
선지자들을 부르셨다고 가르친다. 지상의
첫 선지자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예언자 따라”(어린이 노래책,
58~59쪽) 1~8절을 후렴구를 제외하고
부르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몇몇 선지자들을 떠올려 본다. 몇몇
어린이들에게 이름표나 간단한 물건을
주어 각 선지자를 나타내게 할 수 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비록 오래 전
사람들이지만, 그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점을 어린이들에게
이해시킨다. 각 종이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이름과 그의 가르침 중 하나가
담긴 참조 성경구를 적는다. 예:
이사야-이사야서 54:1 (3차녀에게
주님에 관해 가르치라); 말라기-말라기서
3:10(십일조를 바치라); 예녹-모세서
6:33(주님께 봉사하라);
야고보-야고보서 1:5(하나님께 구하라).
종이를 교실 곳곳에 붙인다.

한 아이의 눈을 가리고 나머지

어린이들에게는 “예언자 따라”의
후렴구를 부르게 하여 눈을 가린 아이를
종이가 있는 곳 중 한 곳으로 인도하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눈을 가린 아이가
종이에 가까워지면 큰 소리로 노래하고
종이에서 멀어지면 작게 노래하라고
한다.

그 아이가 종이를 찾으면 경전 구절을
찾게 하고 함께 읽는다. 그 가르침이
어떻게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강화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종이를 모두 찾을
때까지 계속한다. 여러분을 강화시킨
성경의 선지자의 가르침에 대해
간증한다.

2. 연차 대회에 참석하는 동안 선지자들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느 귀인이 그의 종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에 감람나무를 심고
“망대를 지어 한 사람으로 주위의 땅을
살펴보게 하여 망대 위의 파수꾼이
되게”(교리와 성약 101:44~45 참조)
하라고 말한 비유를 들려준다.

망대 위의 파수꾼은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위험이 닥쳐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망대 위에 있는 우리의 파수꾼이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라고 부름을 받았다.
“예언자 따라” 9절을 부른다. (어린이
노래책, 58~59쪽)

어린이들에게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의 이름을 배우고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도록 도움으로써 다가오는
연차 대회에 잘 참석하도록 준비시킨다.
각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서 짝짓기
게임을 한다. 어린이들이 사진들을
보면서 이름을 반복하여 말하게
한다. (사진은 리아호나 5월호와
11월호에서 찾을 수 있다.)

칠판 한쪽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이름들을 나열한다. 다른 한쪽에 그들의
사진을 무작위로 붙인다.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면서 사진과 이름을 짝지어 보라고
한다. 우리는 살아 있는 선지자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간증한다.
그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